



서울대 미주동창회보

제331호
2021년 11월호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

www.snuaa.org

news@snuaa.org

“내년에 또 봐어요” 원로 초청 오찬 ‘성황’



남가주 서울대총동창회가 주관한 연례 원로초청오찬이 지난 11월 6일 LA 한인타운의 옥스포드 팰리스 호텔에서 200여 명의 선배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열렸다. 이날 오찬 모임은 팬데믹으로 인해 한해를 걸렀다. <관련기사 = 6·7면>

서울대 장학사업 한인사회에 개방

서울대 미주동창회(회장 노명호·공대 61)는 장학사업을 역점 프로젝트 중 하나로 선정하고 이를 한인 커뮤니티에 전면 개방하기로 결정했다.

장학금은 1인당 1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 한인사회 장학금 규모로는 거의 ‘파격’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노명호 회장은 “70년대 학번 이후의 각 년대를 대표할 수 있는 동문들 가운데 5~6명 가량을 장학위원으로 선정해 장학학생 선발에 최대한 공정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노명호 회장은 김중섭(문리대 66) 동문의 기부금 가운데 일부를 종잣돈으로

1인당 1만 달러... 동문들 기금 참여 바라 엘리트 의식 벗어나 커뮤니티와 함께 ‘호흡’

해서 장학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본국 총동창회 상임부회장을 맡고 있는 김 동문은 미주동창회에서 상임고문으로 위촉된 바 있다.

노 회장은 장학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이에 동참하겠다는 동문들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학사업은 세부사항이 결정되는 대로 일간지 등 한인매체에도 대대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노 회장은 장학사업의 한인사회 개방은 나름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말했다. 이제는 ‘서울대 동문끼리’의 엘리트 의

식에서 벗어나 한인 커뮤니티와 더불어 성장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것이다. 미주 동창회는 이외에도 서울대 포

럼을 한인사회에도 개방할 방침이다. 포럼은 현재 학계나 기업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서울대 동문들을 발표자로 선정,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는 비서울대 출신도 포럼에 출연시키는 등 한인사회와 함께하는 서울대 이미지를 부각시킬 계획이다.

재미과기협에 5천불 후원 12월 15일 학술대회 개최

서울대 미주동창회가 올해 창립50주년을 맞은 재미과학기술인협회(재미과기협·KSEA)에 5,000 달러의 후원금을 냈다. KSEA는 12월 15일부터 18일까지 LA 인근의 하이얏호텔에서 연례학

술대회(UKC)를 개최한다. 학술대회에는 이우일 전 서울대 부총장을 비롯해 이대열 교수(존스 홉킨스대)가 기조연설을 하는 등 동문들이 대거 참가한다. KSEA측은 서울대 동문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있다.

문의:(703) 748-1221
이메일: ukc2021@ksea.org

미시간 지부 창립 ... 12면

미주동창회 새주소

SNU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
2410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2005
Tel: 213-908-5586 Email: snuaausa30@gmail.com

서울대 미주동창회의 공식 명칭은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입니다. 동창회비와 후원금을 보내주시실 때는 pay to the order에 공식 풀네임 또는 약칭 SNUAA USA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미주동창회는 기부자들이 세금 보고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비영리단체로 EIN(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은 13-3859506 입니다.

‘타계 30주기’ 강대원 박사

‘발명가 명예의 전당’에 오른 유일한 한인과학자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에 소재한 ‘발명가 명예의 전당(National Inventors Hall of Fame)’은 지난 300년에 걸쳐서 과학기술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분들이 헌액돼 있다. 미국에 위치해 있지만 국적을 가리지 않는다. 그래서 인류의 ‘과학혼’을 모신 사당이라 불려도 전혀 어색하지 않다.

‘전당’에 이름을 올린 분들은 지난 2020년 현재 모두 603명. 그러니 수퍼 엘리트라 불릴만도 하다.

면면을 살펴보자. 수식어가 필요없는 발명왕 토머스 에디슨을 비롯해 전화기를 만든 알렉산더 벨, 비행기를 띄운 라이트 형제, ‘모델 T’의 헨리 포드 등등. 초등학교생들에게까지 익숙한 이름들이 즐비하다. 심지어 노벨상을 만든 스웨덴의 알프레드 노벨도 ‘전당’에 올라있다.

이 가운데 동양계는 10여 명이다. 결코 작지 않은 숫자다. 그런데 한국계가 딱 한 분 모셔져 있다. 강대원 박사가 지난 2009년 ‘전당’에 오르는 영예를 안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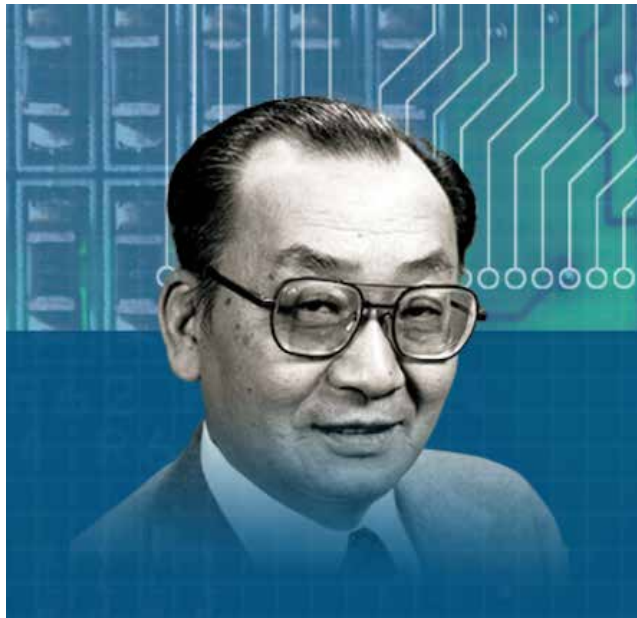
강 박사의 존재는 그때 비로서 알려졌다. 한국과학기술인 협회를 ‘Kahng’으로 표기해 중국계 아니면 중동계로 알았다는 것이다. 한국과는 거의 교류가 없이 미국서만 활동해 그 분의 존재를 몰랐다는 것도 이유로 꼽혔다.

강 박사는 한국인(한국계 미국인 포함) 가운데 노벨상에 가장 근접해 있던 유일한 과학자로 알려져 있다.

지난 2000년 노벨 물리학상은 반도체 연구에 파ioni어 역할을 한 과학자들에 돌아갔다.

세 명의 공동 수상자 중 미국인은 텍

사스 인스트루먼트(TI)의 잭 킬비. 그는 원래 박사학위가 없다. 나중에 명예박사를 몇개씩이나 받았지만, 그 역시 강 박사와 나란히 ‘전당’에 이름을 올렸다.



자는 제조가 까다롭고 전력소비가 많으며 크기가 매우 커서 대량생산이나 상용화하는데 많은 문제가 있었다. 1960년, 강 박사는 그 누구도 실현하지 못하고, 이론적으로만 알려져 있던 ‘모스펫’을 개발해 냈다.

한인 과학자들 가운데 노벨상 수상에 가장 근접해 있었다는 평가를 받은 강대원 박사. 아래는 벨 연구소 시절 동료들과 함께한 사진이다.



숨겨진 ‘과학영웅’ ... 노벨상에 가장 근접 ‘모스펫’ 개발, 반도체 산업의 혁신 이뤄

킬비는 반도체 공정을 위한 집적회로(integrated circuits)를 발명한 공로가 인정돼 노벨상을 받았다.

동창회보 취재팀이 확인한 결과 킬비의 공적서에 강 박사의 업적이 실려있다.

강 박사가 집적회로의 기본이 되는 모스펫(MOSFET)을 만들어 오늘날 인류가 정보사회로 도약할 수 있었던 밑거름이 됐다는 거다.

‘모스펫’이 나오기 전 트랜지스터 소

전력소모도 적을 뿐 아니라 작은 크기 덕분에 집적화가 가능해져 이전 세대의 트랜지스터와는 완전히 다른 혁신을 가져오게 된 것이다.

이 원천기술로 당시 거대했던 전자기기를 소형화할 수 있는 혁신을 가져왔으며 대량생산의 어려움을 겪던 반도체 산업을 거대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 만든 계기가 됐다.

현재도 ‘모스펫’은 컴퓨터의 중앙처리장치(CPU), D램, 낸드 플래시 등 거의

모든 반도체의 기반기술로 IT 산업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강 박사의 또다른 위대한 업적은 대용량 비휘발성 메모리 기술의 기초가 되는 ‘플로팅 게이트(Floating Gate)’를 개발한 것이다. 그동안 반도체는 전원이 꺼질 경우 데이터가 사라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와 관련해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전해진다.

어느날 동료 연구원과 식사를 함께한 강 박사는 디저트로 치즈케이크를 주문했다. 여러 층으로 되어있는 치즈케이크를 보고는 문득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모스펫’ 위에 산화물 박막과 게이트를 교차해서 쌓아 놓는 형태의 메모리용 플로팅 게이트 기술은 이렇게 세상에 나오게 됐다.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MP3, 디지털 카메라, 스마트폰에 음악이나 사진과 같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인류의 삶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온 기술로 평가받고 있는 것이다. 그는 평생 3권의 학술저서와 35편의 연구논문, 22건의 특허등록을 남겼다.

집적회로를 만든 킬비는 노벨상을 받았는데 그 원천기술인 ‘모스펫’을 발명한 강 박사는 왜 못받았을까. 노벨상은 아무리 뛰어난 과학적 성과를 냈다고 해도 타계한 분들에게는 시상하지 않는다.

강 박사가 10년만 더 살았어도..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강 박사는 1992년 5월, 심장 질환이 악 화돼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미국은 그러나 그가 남긴 과학적 유산을 잊지 않았다. 노벨상 못지 않은 ‘발명가 명예의 전당’에 그의 이름을 올렸다.

강 박사는 경기고와 서울대 문리대(물리학 51) 출신이다.

오하이오 주립대에서 박사학위를 받고는 세계적인 명성을 떨쳤던 벨 연구소에서 줄곧 활동을 했다. 한국전쟁 때는 해병대에 자원입대해 장교로 근무한 바 있는 6.25 참전 유공자다.

내년은 강 박사가 타계한지 꼭 30주년이 되는 해다. 후학들이 그를 기리는 행사나 학술대회를 마련하면 어떨까 싶다.

동창회보 취재팀



사스 인스트루먼트(TI)의 잭 킬비. 그는

"만나니 반갑고, 안보면 그립고..." 전국서 송년모임 잇달아

‘부스터 샷’ 접종이 전국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일상의 삶이 점차 정상을 되찾고 있다. 이에 따라 송년모임도 줄을 잇고 있다. 전국 주요지역의 송년모임을 소개한다.

남가주 송년대잔치

일시: 12월 11일(토) 오후 4시
장소: 더블트리힐튼 호텔
13111 Sycamore Dr., Norwalk
회비: \$60(개인) \$100(부부).
2000년 이상 학번은 면제.
문의: 818-450-7868(회장 최용준)
405-564-4008(총무 김용진)

회비: \$75(개인), \$30(학생 및 자녀)
문의: 847-707-0502(회장 김윤하)
224-392-5613(총무 김훈태)

필라델피아

일시: 12월 4일(토) 송년음악회
출연: 조현호(테너), 심화진(소프라노), 박진현(피아노), Yevgeniy Dyo(바이올린)

미네소타

일시: 12월 11일(토) 오후 5시 30분
장소: President Room, Coffman Union
University of Minnesota, Minneapolis
회비: \$30(개인), \$10(학생)
문의: 651-769-5343(회장 차재호)

뉴잉글랜드

일시: 2022년 1월 8일(토) 오전 11시
‘쥬’ 신년하례식
문의: 781-223-4411(회장 김유경)
한편 북가주(샌프란시스코)와 샌디에고, 하와이 등은 올해 송년모임을 열지 않기로 결정했다.

워싱턴 D.C.

일시: 12월 11일(토) 오전 11시
장소: 웨스틴 호텔
7801 Leesburg Pike, Falls Church, VA
회비: \$120(개인) \$30(미성년 자녀), 학생과 포스닥 등은 면제
문의: 703-447-8175(회장 박상근)
512-663-0931(총무 이주희)

시카고

일시: 11월 28일(일) 오후 4시
장소: Chateau Ritz Banquets
9100 Milwaukee Ave., Niles, IL

이목회, 한세월 ... 무슨 모임? 회식위해 멕시코 낚시도 ‘불사’



한세월의 ‘영향권’에 속해있다. 말수회는 마지막 수요일 만나 골프를 즐기는 모임. 주로 원로들이 만나는 단체인데 문호가 완전 개방돼 있다.

이 가운데 가장 ‘극성’인 곳은 이목회다. 지난 10월 14일 김상찬(문리대 65) 동문의 누님집(다우니) 뒷마당에서 15여 명이 모여 회식을 즐겼다.

하이라이트는 싱싱한 회. 이날 모임을 위해 박정모(문리대 66) 동문이 이를 전 멕시코 쪽으로 심해(deep sea) 바다낚시를 갈 계획이었으나 태풍경보때문에 실패. 박 동문이 SOS를 치자 친구들이 프레시한 횡감을 구해 긴급 배달해줬다는 후문이다. 참치, 흰다랑어 등 일반식당에서 쉽게 맛

볼 수 없는 것들이어서 모두들 눈이 휘둥그레졌다.

박 동문은 해군장교 출신이다. 군 복무 시절 백령도를 휘저었던 무용담을 비롯해 바다 이야기로 즐거움을 더해줬다.

이날 회식에 참석한 정형민(문리대 71) 동문은 “회원들의 입을 즐겁게 해주기위해 바다낚시도 마다하지 않는 모임이 이목회외에 또 어디 있겠느냐”며 싱글빙글했다.

LA는 미국서도 동문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곳이다. 그래서인지 친목단체들도 많다. 이목회, 한세월, 말수회 ... 타주에 살고 있는 동문들은 이름만 갖고는 무슨 모임인지 몰라 어리둥절하게 된다.

이목회는 문리대 동문들이 만든 모임이다. 두번째(이) ‘목’요일마다 모인다고 해서 첫 글자를 따 만들었다.

한세월은 첫번째(한)와 세번째(세) ‘월’요일 만난다고 해서 생겨난 이름이다. 주로 LA 남쪽은 이목회, 북쪽은

글 = 김상찬(문리대 65)

유영걸 의대 동문 펜실베이니아 ‘탐닥’ 영예

의대 동문이 펜실베이니아주 최 우수 의사(top doc)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주인공은 유영걸(의대 77) 동문. 헤이즐 타운십에서 소화기 내과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유 동문은 ‘USA 톱 닥터스’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최우수 의료인으로 뽑혔다.



유 동문의 수상 소식은 현지 신문인 타임스 리더(Times Leader)에 사진과 함께 크게 보도돼 헤이즐 타운십에서 유명인사가 됐다.

유 동문은 1981년 유학생 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에 왔다.

70년대 후반부터는 의사 이민이 까다로워져 결국 토플 시험을 치고 메릴랜드의 한 보건대학원에 입학했다.

영주권이 없는 상황에서 레지던트 자리를 구하기는 무척 어려웠다. 마침 소도시 병원에서 병리과 근무를 조건으로 영주권을 받았다.

유 동문은 오하이오주 라이트 스테이트 대학병원에서 수련을 받던 중 우수 레지던트 상을 받았다.

그 덕분에 피츠버그 대학병원 소화기 및 간 내과 펠로우십 프로그램에 들어갈 수 있었다.

한마디로 개인으로선 ‘영광’이었다. 피츠버그는 당시 간이식 수술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었다.

피츠버그 병원에서 2년 여 일하면서 논문을 몇 개 썼다. 이 연구 논문이 의학 저널에 실리는 등 주목을 받기도 했다. 헤이즐 타운십에 자리를 잡은 건 1988년

부터다. 지금은 막내아들 부부가 소화기 내과를 전공해 함께 일하고 있다. 유 동문의 좌우명은 ‘신뢰(trust)’와 ‘존경(respect)’. 환자를 신뢰하고 존경해야 만족할만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이다.

어렵게 이민생활을 시작했지만 유 동문은 ‘아메리칸 드림’을 누구보다 굳게 믿는다. “각자 주어진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면 누구나 꿈을 이룰 수 있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에요.”

유 동문 가족 중엔 서울대 출신이 적지 않다. 조카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UC 리버사이드)의 이상희(문리대 85) 교수. 한국 최초의 고인류학자로 그의 저서 ‘인류의 기원’은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홈커밍 데이에 아이패드 협찬

미주동창회가 제 42차 서울대 홈커밍데이 기념 동문 화합 한마당 행사에

1,000 달러 상당의 애플 아이패드를 협찬했다.

홈커밍 데이는 지난 10월 15일 한국서 유튜브를 통해 진행된 바 있는데 행운권 당첨자는 추후 열릴 동창회 행사에서 추첨으로 결정된다.

구독 및 광고 문의는

213-503-6964

hongsunrye@gmail.com

‘사랑의 큐피드’ 박수경 동문의 결혼 꿀팁

서울대 출신에겐 회원 가입시 특별 혜택 제공 양가 부모들이 동문인 경우도 적지 않아 ‘흐뭇’

C 동문(수학과 95)은 이른바 캠퍼스 커플(CC)이다. UC계열 대학에서 유학 중 비서울대 출신 남성을 만나 백년약을 맺었다.

C 동문은 소위 ‘STEM’ 전공자. 박사학위를 취득하자 여러 유명 대학에서 러브콜이 왔다. 반면 남편은 인문과학 쪽이어서 미국대학 취업이 쉽지 않았다. C 동문은 대학 측에 혼자 갈 수없다며 ‘남편과 함께’ 를 고집했다.

결국 한 군데서 조건을 받아들였다. 명문대학이 아니어서 아쉽지만 부부가 함께 생활할 수 있어 흔쾌히 수락했다. 둘은 10여 년째 이 대학에서 교수생활을 즐기고 있다.

이처럼 서울대 출신의 여성과 비서울대 남성과의 결합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한국서도 2년 전 장안을 떠들석하게 만든 ‘사건’이 있었다.

화제의 주인공은 민혜연 동문(의대 02). 건강관리 방송프로그램에 겹치기 출연할 만큼 실력을 인정받은 이른바 ‘뇌섹녀’다. 더구나 미모까지 받쳐줘 팬덤까지 형성될 정도다. 학력은 ‘스카이 캐슬’급, 얼굴은 ‘연예인’급. 신랑은 누구일까. 지방대를 중퇴한 배우다. 방송국을 드나들면서 사랑이 싹텄다고 한다.

‘서울대 여자’라고 모두 서울대 남자를 만나는 것은 아니다. 한국 제1위의 결혼정보회사 ‘듀오’의 박수경 대표를 이메일로 인터뷰, 결혼에 얽힌 얘기를 들어봤다.

- 서울대 출신 여성과 비서울대 남성 커플이 정말 위의 사례처럼 늘어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다.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예전보다 훨씬 활발해져 서울대 여성대 비서울대 남성 커플이 확실히 증가하는 추세다. 근래에는 서울대 출신이어도 각자 원하는 배우자상에 따라 다양한 직종과 학력의 배우자를 만나는 것 같다.

- 듀오는 LA와 뉴욕 두 군데에 지사를 두고 있다. 아무래도 미국과 한국은 문화, 언어, 사고의 차이가 클 것 같은데 미



결혼정보회사 듀오 대표 박수경 동문 (가정대 84).

최연소 아모레 상무에서 듀오 대표로 이직 서울대 여자와 비서울대 남성 매칭 늘어나 최근들어 여성의 사회진출 활발한 탓 분석



국서는 어떤 차별화 전략을 펴고 있다.

LA나 뉴욕 등 대도시에서 살고 있는 회원 분들은 일대일 만남 셋업을 도와 드린다. 한국인들이 많지 않은 곳에 거주

하는 분들은 줌(Zoom) 미팅을 주선하기도 한다. 비행기를 타고 다니며 적극 노력하는 회원 분들도 적지 않다. 인연을 만나기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아끼

지 않는다.

- 미국에서 주 고객층은 누구인가.

한인 2세대들이다. 이들의 부모세대는 지난 60년대 한국서 서울대 등 명문대를 나와 이민 또는 유학 오신 분들이 많다. 그래서 자녀들이 한국인 배우자를 찾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크다.

현재 2, 3세를 타깃으로 영어 마케팅을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영어권 매니저들을 적극 채용하고 있다.

미국내 젊은층은 온라인 데이팅 앱을 많이 사용하는 편이다. 결혼정보회사는 아무래도 낯설다 보니 처음엔 거부감을 가진 분들도 많았다. 지금은 결혼정보회사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불필요한 에너지, 시간 소비를 줄일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다고 인식이 바뀌어 문의 자체가 많아졌다.

일년에 두 번씩 이벤트를 열고 있어 입소문도 많이 났다. 지난 28년 동안 미국내 한인사회에서 꾸준하고 건실하게 결혼문화를 키우고 있다는 자부심이 있다.

- 데이팅앱과 경쟁이 되나. 듀오의 강점은 무엇인가.

데이팅앱은 이용이 간편하고 비용도 저렴하다. 그러나 데이트 상대와 결혼 상대를 구하는 데는 분명 차이가 있다.

듀오에서는 오랜 경력의 전문가들과 정교한 매칭 시스템이 있고, 전담변호사를 통해 철저한 신원관리가 이뤄진다. 이런 점 때문에 데이팅앱 경험이 있어도 진지하게 결혼상대를 만나고자 할 때는 듀오를 찾는 경우가 많다.

데이팅앱 경험이 있는 분들이 오히려 이러한 매칭 서비스에 대해 거부감이 없는 편이다. 데이팅앱은 듀오의 경쟁상대가 아니라 보완재다.

- 비한인(non-Korean) 이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

미국이나 한국 모두 외국인들의 문의가 오

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한국사람만 회원가입을 받고 있다. 특히 한국은 국내결혼 중매업법 상 외국인 중매는 불가하다.



결혼 재촉보다 혼자사는 것의 어려움 터놓고 얘기해 줘야

현재로서는 한국인들간 중매에 집중하고 있다.

- 태평양을 오가는 매칭도 있다. 가령 여자는 한국에, 남자는 미국에 살고 있는 경우...

당연히 있다. 미국에 살고 있는 교포 분이 한국 분과의 만남을 원하는 경우나 그 반대, 또는 현재 유학이나 해외근무 등으로 외국에 계신 분들은 미국지사나 협력해 한국 분을 소개해 드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 서울대 출신끼리 맺어주는 경우도 있다. 또 서울대 동문끼리 사돈을 맺어 주기도 하나.

회원이 서울대 출신의 상대를 원하면 그렇게 매칭한다. 듀오는 회원 수가 많고, 특히 서울대 출신 회원이 많기 때문에 가능하다. 서울대 출신자에게 가입혜택이 있어 회원가입이 많다. 한편 서로 마음이 잘 맞아 만나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양가 부모가 서울대 출신이라 상견례 등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

- 배우자와 사별하는 등 소위 '황혼'들의 만남도 주선하나.

황혼결혼 및 재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평균수명이 길어져 나이가 드셔도 좋은 사람을 만나 노후를 함께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다. 최근 4년 이내 재혼한 부부중에서 최고 재혼 연령은 남성 71세, 여성 62세였다.

- 옛말에 '중매를 잘 서면 술이 석잔이고 잘못하면 매가 석대'라고 했는데 여전히 유효한가. 개인적으로 '술 석잔'과 '매 석대' 경험이 있는지.

듀오에 입사하기 전에도 만남을 주선한 경험이 종종 있었다. 친한 친구에게 남편의 친구를 소개해 둘은 결혼에 골인 후 지금까지도 잘 살고 있다.

반면 한 후배에게도 만남을 주선했는데 두 사람은 10년 쯤 결혼생활을 하다가 헤어졌다. 그런 소식을 들으니 마음이 아파 두 사람의 새 출발을 앞두고 많은 조언을 해준 적이 있었다.

듀오에서는 성혼 사례금을 받지 않아 '술 석잔' 얻어먹을 일은 없지만, 회원 분들이 성혼하게 되면 고맙다며 회사로 떡이나 간식거리를 많이들 보내주신다.

- 성사가 될 경우 팔로업 서비스(follow-up service)는 어떤 것이 있는가.

성혼회원들에게는 듀오웨드를 통해 결혼식 준비를 돕기도 하고, 결혼이후에는 가정생활에서의 크고 작은 갈등이나 자녀 교육문제 등에 대해 듀오휴먼 라이프연구소에서 컨설팅을 통해 도움을 준다.

매칭이 안 될 경우 그 원인을 파악해 이미지 컨설팅, 연애 컨설팅 등을 제공한다. 첫 가입에 매칭 성공하지 못했어도 이같은 서비스 전반에 만족해 재가입하는 경우도 많다.

박수경 동문은 서울대(소비자학과 84)를 나와 모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지난 2000년 아모레퍼시픽 최연소 임원이 돼 화제가 됐다. 듀오로 이직할 때 당시 서경배 아모레 회장이 "대한민국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격려해 감동을 받았다고 한다. 서울대 총동창회 부회장을 맡는 등 봉사에도 열심이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결혼에 대한 필요성 절감하는 젊은이들 늘어

- 미국서도 2세들의 결혼이 큰 문제로 꼽히고 있다. 비혼주의자들도 적지 않다. 이들에 조언을 해준다면.

요즘엔 결혼을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 보는 미혼남녀가 많다. 비혼을 택하는 이들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혼자인 것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는 이들이 많다.

결혼

하지 않

다가 40

대 후반

정도에

결혼을

원하는

이들이

느는데,

나이가

있는 상

태에서

의 결혼

은 어느

정도 포

기해야

하는 것

들이 늘

어날 수

밖에 없

다.

부모

님들은

미혼인

자녀들에

게 일방적

으로 결혼

재촉을

하기보다

결혼생활

의 장점과

나이를

들어 혼자

사는 것의

어려움 등

을 터놓고

이야기하

는 시간

을 갖는 것

이 좋다.

최근 코

로나 팬

데믹으로

인해 사회

적 활동이

어려워지

면서 오히

려 결혼

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한 이

들이 늘어나고 있다.

예측할 수 없는 위기상황 속에서 결국 중요한 것은 가족이라는 결론을 내린 이들이 늘어난 것이다.

이러한 부분들을 자녀와 이야기 하며 결혼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 앞으로의 포부와 역점사업은?

듀오는 '종합 라이프 컨설팅 기업'을 목표로 생애주기에 따라 사람과 사람을 잇는 일을 이어갈 것이다. 결혼에서 나아가 홀로가 아닌 '함께라

서 행복한 삶'을 지향한다.

따라서 배우자 소개뿐 아니라 결혼식

과정을 돕고, 부부생활

및 자녀와 부모관계

상담까지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이젠 '시니어

소셜라이징'

사업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고령화 사회를 사는 첫 세대들이니

만큼 고령화시대를 어떻게 살아가고

준비해야 할 지 막막하게 느끼는 이

들이 많다.

은퇴 후의 삶은 저출산 못지않게

심각한 사회문제인 만큼 노인이 행복

한 나라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

중이다.

미주 서울대 동문들께서도 시니어

소셜라이징이 필요하다면 적극 도와

드릴 것이다.



Century Foundation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재정자립

300만불 모금 캠페인

후원해 주신 동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
2410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2005
(213) 908-5586

“선배님들은 우리의 버팀목, 사랑합니다”

LA 원로 초청 오찬... 올해는 66학번 이전

남가주 총동창회(회장 최용준·수의대 81) 주최 원로 초청 오찬 행사가 지난 11월 6일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옥스포드 팔래스 호텔에서 성대하게 열렸다. 매년 가을 개최됐던 이 행사는 지난해 팬데믹으로 인해 2년만에 열렸는데 200여 명의 원로 선배들이 일치감치 예약을 마쳐 그동안 이 행사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가능하게 되었다.

교도 존재하고 남가주 총동창회와 후배들이 존재한다”고 존경의 뜻을 표했다. “특히 지난 팬데믹 기간 동안 연로하신 선배들의 건강이 걱정되었는데 모두들 건강하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선배들의 봉사와 헌신으로 이어져 온 남가주 총동창회를 위해 후배들 역시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행사준비에 많은 도움

장은 “팬데믹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동창회의 큰 행사들을 거침없이 잘 진행해 오고 있는 최용준 회장단에게 찬사를 보낸다”며 “모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후배 모두 동창회에 관심 갖고 참여해 서로 끊임 없이 소통하자”고 당부했다.

후배들을 대표해 모원균(공대 89) 행사위원장이 초대의 글을 낭독했다. 모

축가는 손영아(음대 85) 부총무가 푸치니(G. Puccini)의 유명 아리아 ‘O Mio Babbino Caro(나의 다정한 아버지)’를 불러 큰 박수를 받았다.

22개의 테이블마다 너트 위주의 간단한 안주와 와인인 올리브오일 한식 뷔페로 오찬을 대접했다. 전복죽과 갈비찜, 나물 등 다양하고 푸짐한 음식과 함께 오색 경단과 백설기 및 음료도 준비



▲ 이날 오찬 모임엔 66학번 이전 선배들이 초대됐다. 200여 명의 원로들이 행사장을 가득 메워 열기를 더했다.

◀ 최용준 회장이 임석중(오른쪽, 공대 51) 최고참 원로 선배에게 선물세트를 증정하고 있다.

행사는 그 해 기준 55년 이전 학번, 즉 올해는 66학번까지의 선배들이 초대됐다. 학번과 상관없이 역대 총동창회 회장인 상임이사들도 초청 대상이었다.

1부는 남가주총동창회 회장의 인사, 원로 대표의 축사, 후배 대표의 초대인사에 이어 동창회에 공이 큰 여섯 원로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오찬에 이어 열린 2부에서는 축하 연주 및 임원들이 준비한 연극 무대가 있었고 참석자 중 최원로 선배와 깜짝 이벤트를 통해 선물증정하는 시간을 갖는 등 후배들의 ‘재롱잔치’가 이어져 분위기를 달궜다.

행사는 김용진(수의대 91)총무의 개회 선언으로 막이 올랐다. 최용준 회장은 환영사에서 “많은 행사 중에서도 원로 초청 오찬 모임을 가장 뜻깊게 생각한다”며 “선배님들이 계셨기에 지금의 모

최용준 회장 “모두 건강하셔서 감사” 동창회 모임 ‘개근’ 여섯 분에 감사패

을 준 각 단과대 회장들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했다.

최 회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및 실내 모임이 제한됐는데도 상황을 즐기롭게 극복, 주변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유튜브 제작으로 다양한 세대의 동문소식 및 정보교류에 힘썼다. 동문행사를 영상으로 보여줘 동창회에 소극적이었던 동문들의 참여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

이어 박제환(문리대 75) 차기 회장의 참석자 소개가 있었다. 박 차기 회장은 “참석하신 분 모두가 오늘의 주인공”이라며 원로 선배들을 환영했다.

원로 대표 축사는 노명호(공대 61) 미주 동창회장 겸 상임이사가 했다. 노 회

위원장은 “타향에서 만난 동창회 선배들이 가족처럼 소소한 것까지 챙겨 주시고 행사에서 만날 때마다 관심과 격려, 그리고 칭찬을 해 주시는 선배님들 덕분에 보람과 감사를 느낀다”고 말했다.

남가주 총동창회는 올 한 해 골프 토너먼트, 총회, 자선 음악회, 야유회, 그리고 이날 오찬 모임까지 모든 행사에 빠짐없이 참석한 오형원(의대 53) 상임이사, 방석훈(농대 55) 상임이사, 박상길(농대 58) 상임이사, 노명호(공대 61) 상임이사, 한종철(치대 62) 상임이사, 그리고 남종우(공대 62) 공대 회장 등 여섯 분에게 감사패와 홍삼 선물세트를 증정했다.

데 오랜만에 잔치 분위기를 연출했다.

2부는 최용준 회장이 직접 진행을 맡았다. 손영아 부총무가 예정에 없던 앵콜로 ‘Nella Fantasia’를 불

러 분위기를 한껏 달군데 이어 바이올리니스트 김유은(음대 07) 문화위원과 바이올리니스트 에티엔 가라(Etienne Gara)가 축하 연주를 했다.

둘은 ‘딜리리엄 뮤지컴 챔버 오케스트라(Delirium Musicum Chamber Orchestra)’ 감독이자 리더.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5번(Hungarian Dance No.5), 장미빛 인생(La vie en Rose), 그리고 몬티(V. Monti)의 차르다시(Czardas)를 선사해 갈채를 받았다.

특히 에티엔 가라는 개량 한복을 입고 나와 한인 어른들에 대한 예를 표하여 감동을 줬다.

두 사람은 지난 해 팬데믹으로 모든 공연이 취소되자 찾아가는 음악회, 이른

“1년치 웃음 오늘 다 웃었어요”



이날의 하이라이트인 ‘진나빛’ 유랑악극단의 ‘최진사댁 셋째 딸’ 공연 장면. 코믹한 연기로 폭소가 터져나오는 등 축제 분위기를 연출해냈다.

‘최진사댁 셋째 딸’ 공연에 폭소 터져 “근래 보기드문 훌륭한 무대였다” 찬사

바 ‘뮤지캐러밴(MusiKaravan)’을 결성, 서부 일대를 다니며 6개월 넘게 연주 여행을 해 화제를 모았다. 그들의 이야기가 지난 봄 남가주 총동창회 유튜브 동문 탐방 코너에서 소개된 이후 동문들에게도 널리 알려졌고, 그들의 다양한 연주와 에피소드는 지금도 계속

만 상품을 받을 수 있었기에 연출된 다양한 춤 솜씨는 보는 이들 모두 즐겁게 했다. 주최측은 이날 모든 참석자들에게 남가주 총동창회 이름이 새겨진 기념 수건과 초콜릿을 선사했다.

이어서 ‘진나빛’ 유랑 악극단의 무대가 열렸다. 악극단 밴드와 배우들은 전

동창회 원로 초청 오찬 행사에서 해후하게 된다는 코믹 단막극이다.

연극의 각본 및 감독은 손영아 부총무가 맡았다. ‘나이는 숫자일 뿐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자’가 주제인데 60년대 말부터 70년대 초 서울 대학교와 현재의 LA라는 시간과 장소

준 회장, 기타 최성록(공대 92) 미디어위원, 베이스 채규진(문리대 80) 행사위원, 그리고 키보드는 유혜연(음대 79) 문화위원이 맡았다. 모원균 행사위원장과 신경섭(문리대 91) 차세대활성위원, 오중호(공대 90) 차세대활성위원은 가수로 변신, 열창했다.

신경섭 위원은 최진사 역도 맡아 긴 대사를 잘 소화해냈고, 한귀희(미대 68) 상임이사가 여주인공 삼순이 역을 맡아 큰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하이라이트는 객석 선배들의 참여였다. 2막에서 한귀희 상임이사와 손영아 부총무, 그리고 오중호 위원이 원로 초청 오찬 행사에 온 친구들로 분하여 오랜만에 만난 동문들과 인사하는 내용이 있는데, 실제 객석의 제영혜 상임이사, 방석훈 상임이사, 오형원 상임이사, 노명호 상임이사 등 선배들을 친구처럼 불러 큰 웃음을 자아냈다. 그 외 최진사의 여자 친구 역으로 김옥권(미대 76) 문화위원장과 칠복이의 비서로 박제환 차기회장이 등장해 신 스틸러가 되기도 했다.

진나빛 유랑 악극단원들은 각자 바쁜 일정과 먼 거리에도 불구하고 지난 6주 동안 매주 목요일에 모여 이날 행사를 위해 연기와 연주 연습을 했다.

원로 선배들은 근래 보기 드문 훌륭한 무대였다고 입을 모으며 출연진과 임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벌써 앵콜 무대를 묻는가 하면 다음달 송년회 때 2탄을 기대하는 분들도 있을 만큼 반응이 뜨거웠다.

오형원 상임이사는 “칠복이와 삼순이가 헤어지는 장면에서 옛 생각이 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며 “비록 코믹 단막극이지만 시대를 잘 표현했다”고 칭찬했다. 이명선(상대 58) 선배는 “반세기 넘게 미국에서 살았지만 이렇게 재미있는 행사는 처음이다”라며 “특히 최용준 회장의 진행 솜씨와 임원들의 연주와 노래, 연기 등은 오래 오래 생각날 것”이라고 말했다.

유형규(수의대 66) 선배는 삼순이로 출연한 한귀희 상임이사에게 꽃다발을 안겨 박수를 받았다. 특히 미대 선배들은 “1년 치 웃음을 오늘 다 웃은 것 같이 즐거운 시간이었다”고 후배들의 공연을 고마워했다.

이외에도 많은 원로 선배들이 일일이 임원들의 손을 잡아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서울대의 모토를 내걸고 하는 무대인 만큼 임원 모두 진심으로 준비했고, 완벽하지는 못 해도 선배들 모두 후배들을 귀엽고 예쁘게 봐주시어 역시 서울대인들답게 이심전심으로 마음이 잘 통한 하루였다.

글= 손영아(음대 85)



▲ 바이올리니스트 김유은 동문과 에피엔 가라의 축하 연주.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몬티의 차르다시 등을 연주해 많은 박수를 받았다.

◀ ‘넬라 판타지아’를 열창하고 있는 손영아 부총무. 손 동문은 예정에 없던 앵콜을 받아 무대에 섰다.

유튜브에 업로드되고 있다. 참석자들 가운데 맨 먼저 홍삼 선물 세트를 받은 동문은 최고참인 임석중(공대 51) 선배. 이어 각 테이블에서 한 분씩 당첨된 22분이 홍삼 선물을 받았는데 사회자의 요구로 나올 때 춤을 춰야

원 총동창회 임원들로 구성됐다. 연극 제목은 ‘최진사댁 셋째 딸.’ 그러나 시대에 맞게 최진사는 칭호가 아니라 이름으로 설정했다. 서울대에 간 최진사의 자랑스러운 딸 삼순이와 캠퍼스 커플이던 칠복이가 50년 만에 남가주 총

배경 설정이 원로 선배들의 세대 이야기기에 높은 호응을 받았다.

막간에는 진나빛 밴드가 ‘최진사댁 셋째 딸’, ‘Hey Jude’, ‘님과 함께’, 그리고 ‘내 나이가 어때서’를 연주했는데 드림은 악극단 단장이기도 한 최용

정재훈(공대 64) 박사의 장녀 줄리 정 스리랑카 대사 상원 인준 청문회

줄리 정(한국명: 정지윤) 스리랑카 대사 지명자가 지난 10월 20일 상원 청문회에 참석, 인준절차가 시작됐다.

정 지명자는 정재훈(공대 64) 박사와 정정숙 부부의 장녀. 25년간 미국 외교관으로 일하며 아시아계 여성으로서 겪어야 했던 고충과 차별을 이겨내고 조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대사로 낙점받았다.

정 지명자는 태국과 콜롬비아, 베트남, 일본, 중국, 이라크 등지에서 다양한 해외근무를 경험했다. 한국어는 물론 일본어, 중국어(광둥어), 캄보디아, 베트남, 스페니시 등 6개 국어에 능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부에서는 일본과장을 거쳐 대사 지명 직전까지 서반구 차관보대

행을 지냈다.

특히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를 담당할 때는 북한을 여러 차례 방문해 '북핵'에 관한 한 국무부 내에서도 몇 안되는 전문가로 꼽힌다. 당시 북한 관리들은 회담 테이블에서 한국말로 자신에게 "진짜 미국인 이냐"고 물었다고 한다. 북한인들은 소주를 마시며 노래하다가도 종종 "미국놈들"에 대한 분통을 터뜨렸다는 일화도 소개할 정도다.

5살 때 가족과 함께 이민온 정 지명자는 UC샌디에고와 컬럼비아대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했다. 정 지명자의 상원 청문회 발언을 요약해 소개한다. - 편집자.



줄리 정 스리랑카 대사 지명자가 지난 10월 20일 상원 외교위의 인준청문회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정 지명자는 부모님의 희생과 기독교 신앙이 삶의 바탕이 됐으며 감사를 표했다. 외교관 경력 25년의 베테랑인 정 지명자는 6개국어에 능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국무부 제공>

“부모님의 희생과 기독교 신앙이 내 삶의 바탕”

존경하는 (밥 메넨데즈) 위원장님, 해거티 의원님, 그리고 외교위원회의 위원님들. 오늘 대통령의 스리랑카 대사 지명자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블링컨 국무장관이 저를 이 공직에 지명해 주신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1세대 한국 이민자입니다. 부모님은 제게 근면과 긍정의 가치, 나라사랑과 기독교 신앙, 특히 미국은 기회의 나라이며 '선의의 힘(force for good)'이 일군 나라라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부모님은 저와 제 동생(카니)을 위해 온갖 희생을 다 하셨습니다. 이 같은 부모님의 조건없는 사랑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또 제 남편의 지지와 인내심은 저희 가정의 굳건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올해 8살된 아들 마테오는 엄마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아직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런데도 엄마가 하는 일은 늘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25년동안 외교관 생활을 하며 저는 아시아와 남미, 그리고 중동에서 미국의 이익을 지키는 한편 이들 지역 국가들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일궈내고 또 미국의 가치관을 전파하고 사기업 주도의 경제건설에 진력하

미국은 '선의의 힘'이 일군 나라 북한도 수차례 방문, 일화 많아



지난 1996년 외교관 선서식을 한 뒤 가족과 함께 찍은 기념사진. 왼쪽부터 동생 카니 정, 부친 정재훈 박사, 줄리 정, 모친 정정숙 여사.

는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중국과 일본, 동남아시아에서의 제 경험은 인도 태평양지역에서 미국의 리더

십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해주는 계기가 됐습니다. 또한 서반구 차관보 대행으로 근무하며 이들 지역에서 민주적 동반자들을 지원하고 전체주의적 억압

과 부패 그리고 테러리즘에 대항하는 능력을 강화시켰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스리랑카는 아시아에서도 가장 오래된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폭력과 인종 및 종교간 반목으로 촉발된 내전의 비극을 이겨낸 나라입니다.

(대사로) 인준되면 저는 민주주의 가치관과 인권, 그리고 우리의 대외정책에 있어 중요한 시민사회를 건설하는 데 일관된 목소리를 낼 것임을 다짐합니다.

스리랑카는 인도양의 전략거점에 속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리랑카의 항구는 글로벌 해양 노선에 근접해 있고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교역 루트입니다.

저는 우리의 가장 소중한 자산은 혁신과 인적교류, 그리고 교육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미국에 살고 있는 스리랑카 이민자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들 역시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의 가치관을 심어주고 스리랑카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중요한 파트너가 되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오늘 제게 (인준 청문) 기회를 주신 외교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물 부족, 우리가 해결한다

‘텔로팜’ 창업 … 물 60% 절약, 소출은 50% 증가



이정훈 교수
(공대 85)

다음은 서울대 이정훈(공대 85) 교수가 지난 9월 미주동창회 포럼에서 스마트팜과 관련해 프리젠테이션한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식물과 사람은 직접 대화를 나눌 수 없다. 그러나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이용하면 어느정도 가능하다. 또한 공통점이 하나 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보다 양질의 결과물을 낸다는 것이다.

논문도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아야 제대로 된 것을 내놓을 수 있다.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해 봤을 터다. 식물도 마찬가지다.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줘야 소출이 많이 나고 맛도 뛰어나다.

내가 세운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농장에는 방울 토마토가 주렁주렁 달려 있다. 무게가 일반 방울 토마토보다 7배 쯤 더 나간다. 맛은 어떨까. 당도 측정을 해보면 14 브릭스(brix)나 된다.



식물의 줄기에 꽂아 생체정보를 수집하는 초소형 센서.

일반 방울 토마토는 7~8 브릭스에 불과하다. 한마디로 제철 딸기처럼 달콤한

왕방울 토마토다.

그런데 이파리들은 하나같이 시들시들하다. 대체 어떻게 이런 상태에서 싱싱하고 큼지막한 열매가 달리는 걸까. 토마토에 스트레스를 줬기 때문이다. 토마토가 물이 필요한 때를 정확히 알아서 딱 그때만, 그것도 약간 부족하다 싶게 줬더니 스트레스를 받아 이렇게 크고 싱싱하게 자란 것이다.

비밀은 센서에 있다. 방울 토마토 줄기마다 초소형 바늘(probe)이 꽂혀 있다. 센서에는 초소형 반도체 칩이 내장돼 있다. 이 칩이 식물의 수분 흐름 등



텔로팜 농장에서 재배하는 방울 토마토. 당도는 14.1 브릭스로 기존의 방울 토마토의 2배 가량이나 된다.

딸기처럼 달콤한 ‘왕방울 토마토’ 줄기에 센서 꽂아 데이터 분석

을 파악하는 열쇠가 된다. 필자가 창업한 텔로팜(Telofarm)이 개발한 센서다. 쉽게 설명하면 이렇다. 식물의 줄기에 바늘을 꽂으면 물의 흐름과 광합성, 영양분 흡수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 사람에 비유하면 혈압과 맥박을 재는 것이다.

따라서 이 센서를 이용해 햇빛과 온도 등이 식물에 어떤 영향을 주는 지 알 수 있다.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식물이 가장 잘 자랄 수 있는 조건을 설정하는 것이다.

텔로팜은 이를 IoP(Internet of Plants)라 명명했다. IoP를 통해 식물과의 대화가 가능해진 것이다. 즉, 식물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물이 부족하면 말라죽고 물을 너무 많이 주면 썩게 된다. 텔로팜은 자체 개발한 센서를 통해 적정량의 물을 줘, 물을 크게 절약할 수 있다.

물을 줄이면 식물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 대신 당도는 올라간다. 검침 센서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다가 적절한 타이밍에 물을 공급하기 때문에 식물이 말라죽지 않고 잘 자란다.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엔 농민들이 경험을 바탕으로 농사를 지었지만 이제는 공학기술이 들어가 농업을 정량화할 수 있게 됐다. 네덜란드의 농과대학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교수진의 면면을 보면 그러나 놀라게 된다. 대부분 물리학, 수학, 공학자 등 소위 ‘STEM’ 전공자들이다.

뫼니뫼니해도 텔레팜의 승부처는 캘리포니아다. 현재 현지법인을 설립 중이다. 와인과 각종 과일, 아몬드부터 마리화나까지 대규모 농업이 이뤄지는 캘리포니아는 최근 엘니뇨, 라니냐와 같은

기후변화로 물 부족이 심각한 상태다. 일부 지역에선 물 사용량을 제한할 정도다. 텔로팜의 기술은 생산성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물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이외에도 골프장에 우리의 기술이 들어가면 물을 적게 주고도 싱싱한 잔디를 유지할 수 있다. 센서를 홀컵 아래에 설치하면 잔디 손상이 거의 없다. 캘리포니아엔 동문들이 소유한 골프장이 여러 개 있다고 들었다. 우리를 초청해 준다면 절대 실망을 드리지 않겠다.

앞으로는 텃밭이 대세가 될 것 같다. 세계적으로 식량의 과잉생산을 방지할 수 있고 또 트럭을 이용한 물류이동이 없어 공해물질이 대기에 배출되는 상황이 없게 된다. 환경보호에도 텃밭은 유용한 수단이 되는 것이다.

텔로팜의 목표는 물을 60%까지 절약하고 소출은 50% 더 늘리는 것이다.

IT산업에서 처럼 농업에도 혁신이 일어나야 한다. 농업과 반도체가 결합하는 새로운 개념이다. 미래의 농부는 화이트칼라 데이터 매니저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정훈 교수는

- * UCLA에서 초소형정밀기계기술(MEMS) 전공으로 박사학위.
- * 노스웨스턴 대학 조교수.
- * 서울대 기계항공공학부 교수.
- * 제9회 대통령 젊은 과학자상.
- * 텔로팜 창업(2018년).

우리가 개발한 센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병충해 방지에도 탁월한 기능을 한다. 예를 들어 플로리다주의 대표 농업은 오렌지다. 5~6년 전쯤 나방이 옮기는 바이러스로 인해 수확량이 무려 50%까지 줄었다.

텔로팜의 센서는 데이터를 분석해 식물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 이같은 병충해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중동의 아랍 에미리트에서도 병충해 조기발견 프로젝트를 진행, 큰 성과를 거뒀다. 앞으로는 이 시장도 매우 커질

노명호 회장 북가주 방문

“한인 커뮤니티에도 기여하는 동창회 되기를” 젊은 동문 참여 절실, 과감한 투자와 지원해야

노명호 미주동창회장이 지난 10월 22일 취임후 첫 방문지역으로 북가주 동문회를 찾았다. UC 버클리에서 공부했던 노 회장의 남다른 인연과 함께 북가주에 특히 많은 공대 동문들, 그리고 또래 동문들의 기대 속에서 노 회장의 북가주 동창회 방문이 이루어졌다.

빗속을 뚫고 노 회장 부부가 로스엔젤레스에서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도착했다. 북가주 임원진은 샌프란시스코 동쪽 더블린의 소담식당에서 부부동반으로 노 회장 부부를 반갑게 맞이했다.

임준원(기계 77) 회장, 최승희(경제 81) 부회장(친숙하게 총무로 불리운다)과 부군 김범섭(전자 79), 강정수(대기과학 61) 이사장 등 임원진과 북가주 고참 홍경삼(외교 61), 민병곤(토목 65) 동문 부부들이 자리했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과 뜨거운 악수에 반가운 환담이 오가고, 샌프란시스코, LA 이야기 등 옛날 추억들을 되새기며 식사가 진행됐다. 농주를 한잔씩 건네면서 노 회장과 학번이 같은 61학번 동문들은 즉석에서 “말을 트자”며 화통한 대화가 이어졌다.

장학사업 설명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동창회 운영에 관해 많은 의견을 교환했다. 노 회장은 미주동창회에서 추진할 장학사업에 대해 설명하면서, 장학금은 학비의 반액 내지 전액을 지급하는 큰 장학 사업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북가주동창회도 활발히 참여를 해 동문들뿐 아니라 한인 커뮤니티에도 서울대 동창회가 기여하는 계기를 만들자고 말했다.

노명호 회장은 또 북가주 지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미주 장학선발에 참여하기를 특별히 당부했다. 그리고 동문회가 젊은 동문들의 참여가 많이 필요한데, 각 지부에서 그들을 위한 행사에 과

감한 투자와 지원을 해 참여를 유도하는 제안도 했다.

다음날 오전 10시 하이킹 트레일의 반환점에 Zinfandel 하이킹 8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총 31명이 모였다. 코로나 이

이 모인 것이다. 그 중에는 2년만에 나온 회원들도 있었다.

8주년을 자축하는 의미에서 샴페인 대신 스파클링 애플 사이더로 모두 건배를 했고 그 후 멤버들이 가장 궁금해 했

노 회장은 미국에 처음 온 곳이 북가주 버클리 지역으로 UC 버클리에서 석사도 마치는 등 북가주 지역과의 남다른 개인적 유대감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꽤 많은 하이킹 회원들이었지만 노 회장은 일일이 악수를 하면서 각자의 소개도 들었는데 특히 북가주에서 최연장자이신 한만섭 선배(항공 49)와의 만남은 특별했다.

하이킹 8주년 기념 산행

한만섭 선배님은 서울대 항공학과 교수를 역임하다 미국 보잉사로 이직, 은퇴 후 북가주 지역으로 왔는데 이 지역에서 동문들의 훌륭한 롤 모델이기도 하다. 지난 6월 미주 총동창회 회의때 서울대 총동창회장 상을 받았는데 일정이 겹쳐 참석을 못했다가 이번에 비로소 노명호 회장과 만나게 된 것이다.

그밖에 하이킹 그룹의 회원들이 대체로 북가주 동창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동문들인 관계로 이날 동문들과의 만남과 인사는 향후 북가주 동창회를 이 해하고 함께 일을 해나간다는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노상규 동문의 메들리

공식적인 인사 후, 조금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Potluck으로 가져온 풍성한 음식을 먹으며 노명호 회장의 LA 사업 등 개인적인 이야기들도 많이 나누었다.

특별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모두들 모여 단체 사진도 찍고, 소규모 그룹 사진들도 찍는 등 각자가 이날의 추억을 만드는 좋은 시간을 가졌다.

회원 중 노래를 잘 부르는 노상규 동문(기계 61)의 가곡 메들리 또한 대미를 장식하는 즐거운 엔터테인먼트였다.

글: 임준원(기계 77), 최승희(경제 81)



노명호 미주동창회장의 방문을 맞아 열린 산행에는 이례적으로 31명이나 되는 동문들이 모여 성황을 이뤘다. 이날은 Zinfandel 하이킹 8주년을 맞는 날이어서 더욱 뜻깊은 행사가 됐다



노명호 회장 방문환영 저녁 모임. 왼쪽 앞부터 홍경삼(외교 61), 노명호 회장, 김범섭(전자 79) 최승희(경제 81) 동문 부부, 노현숙(Mrs. 노명호), 전해경(화학 67) 동문.

하이킹에는 30명 넘게 모여 ‘성황’ 한만섭 원로선배와 특별한 만남도

전에는 보통 25명 정도 참석하는 하이킹이었다. 코로나 이후 올해 5월부터 다시 재개된 하이킹에서는 보통 15~20명 정도로 그 참여 규모가 약간 감소하였는데 이날 모임은 유례없이 많은 인원

던 노명호 회장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 회원들은 이미 노 회장이 Zinfandel 등 산반 기념 모임에 맞춰 온다는 이야기를 공지받았기 때문에 기대감을 갖고 이날 특히 많이 모인 것이다.



라스베가스까지 비행기로 간 후 버스를 대절해 모뉴먼트 밸리, 자이언 캐년, 브라이스 캐년의 그랜드 서클을 돌았다. 북가주 동문회는 등산과 여행으로 맺어진 모임이어서 가족같은 분위기다.

“건강하려면 나를 따르라” 가족같이 찼한 사랑 - 북가주 Zinfandel 등산클럽

‘못 걸으면 아프다.’

북가주 서울대 등산반 동문들이 매주 걷는 트레일 이름이 Zinfandel 트레일이다. 포도주 양조장 이름이 Zinfandel 이고 그 옆에 등산로가 있어 Zinfandel Trail이다. 이재성(공대 65) 동문이 발 굴해 추천한 코스다.

“아파서 못 걷는 것이 아니라 못 걸으면 아프다. 그러니 우린 걷자!”

북가주 등산반이 8년 전 결성될 때 제안자 이장우(문리대 72, 북가주 서울대 동문회 전 회장)동문이 내건 슬로건이었다. 그리고 최고참 한만섭(공대 49) 동문이 “건강하려면 나를 따라 걸으라!” 는 훈령(?)을 내렸다.

이에따라 매주 토요일 오전 8시면 어김없이 15~20여 동문이 모여 Zinfandel 산행길에 나섰고, 툭툭이 미주 곳곳의 명소로 함께 여행을 다녔다. 1년에 두 세번 북가주의 명소로 원정을 가고, 한국의 유명한 둘레길도 다녀오고, 모뉴먼트 밸리, 자이언 캐년에서 브라이스 캐년으로 이어지는 그랜드 서클을 돌기도 했다.

산행 때마다 의무감이 아닌 스스로 만든 별미 간식들을 나누며 행복감에 젖는다. 여행지에서는 특산물을 사가지고와 멤버들이 함께 입맛을 돋구기도 한다.

매달 첫 주 산행에는 그달에 생일을 맞은 회원들을 위해 최승희(경제 81)동문이 당일 새벽 직접 수고를 하며 만든 케이크를 가져와 회원 모두가 함께 축하했다.

그렇게 함께 걷기를 8년. 이제 Zinfandel 북가주 서울대 등산반은 가족같은 인생 동지들이 됐다.



비가 와도 걷고, 무지개가 뜨면 어린이가 되어 걷는다. ‘못걸으면 아프다’ 가 클럽의 캐치프레이즈다.



항상 수고하는 부부동문 박사. 남편 김범섭(공대 77)은 공학박사, 최승희(사회대 81)총무는 경제학 박사로서 모두 UC 버클리 출신.



홍경삼(문리대 61, 오른쪽)과 노상규(공대 61) 동문. 연배도 비슷해 친형제처럼 허물없이 지낸다.

1년반 전부터 코로나로 인해 만남이 단절됐지만 줌(Zoom)이라는 디지털시대의 소통 시스템을 도입해 다시 매주 만남을 이어갔다. 서로의 근황들을 나누고, 읽은 책에 대한 토론들도 줌에서

이어졌다. 연수차 다녀간 동문이 서울에서, 그리고 하와이 여행을 간 동문도 참여하는 등 줌 미팅은 실제 모임 이상 활발했다. 회원은 서울대 출신은 물론 서울대와

연관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따뜻하게 환영하며 새 가족으로 맞아 들었다.

회원들의 80% 이상이 서울공대 출신인 것이 특징이기도 하다.

회원들중 특별한 날을 맞이하는 분들이 있다. 미수 88세를 맞으시는 분, 회혼식, 금혼식에서 팔순을 맞으시는 분에 이르기까지, 세월은 물론 최근의 코로나까지 이겨낸 분들에 대한 특별한 케이크(물론 최승희 동문 작품)와 축하가 이어졌다.

산타 크루즈로 이사를 가며 핑계로 산행을 한 주 거르려 했던 이장우 동문은 토요일 아침마다 이메일에서 외쳐대는 여성 총무 ‘셋별’ 최경희 동문의 “가자아!” 외침에 화들짝 놀라 ‘잘리지 않기 위해’ Zinfandel로 향한다. 그리고 그날도 후회없는 즐거움을 안고 돌아온다.

나이가 들수록, 또 늙어 갈수록 행복하고 즐거워진다면 성공한 인생일 것이다. 일생을 후회없이 살았고, 최고의 재산이라는 아내와 건강함이 있지 않은가?

더군다나 Zinfandel 등산클럽을 통하여 따스한 사람들을 자주 만나며 살고 있으니, 후회가 자리잡을 틈이 없다.

“착한 사람은 지금 사는 이 세상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악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자신의 지옥을 경험한다” (Heinrich Heine, 독일 시인)는 말처럼 우린 지금 천국에서 살고 있다고 믿는다.

이번 토요일 또 Zinfandel 동문들과 걷는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다. 이제 9년째를 향하여 간다.

글= 홍경삼(문리대 61)



미시간 지부 창립 총회

회장에 정무형, 40대 동문 대거 참여

“미국에서 제가 서울대학교 졸업생이라는 것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백지에서부터 미국생활을 시작했는데, 이제 50년만에 서울대를 나왔구나 하는 긍지를 갖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동창회가 잘되기를 바랍니다.”

미시간 지부 창립 총회날 1971년부터 미시간에 정착해 살고 있는 57학번 동문의 감회어린 인사말이다. 이 짧은 인사말이 서울대 동창회 미시간 지부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해 준 것이라고 참석자들은 입을 모았다.

지난 10월 14일 미시간 지역 다수 동문들이 줌회의에 참여해 현지시각 오후 8시 지부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한국시각으로 모교 창립 75주년 기념일인 10월 15일을 맞아 미시간에서 3년동안 준비했던 지부 창립 첫 총회가 개최된 것이다.

강신조 박사의 환영사로 시작된 창립

총회는 미주 동창회 노명호 회장의 축사로 이어졌다. 한국에서는 이수성 전 모교총장(총리역임)이 직접 참가해 축사를 했고, 이희범 총동창회장이 축사를 보내 왔다.

고광국 박사 부부 등 20 여명의 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총회는 정무형(문리대 70) 준비위원장을 만장일치로 초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모든 시니어 회원들은 고문 혹은 자문위원으로 함께 미시간지부 창립과 발전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정무형 회장은 “미시간 지부의 탄생과 함께 동문회로서 발전에 여러 동문들의 축하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회장단에는 80년대 후반과 90년대 학번의 40대 동문들이 대거 참여해 새로 탄생하는 동창회 지부로서의 의미를 더했고, 앞으로 성장전망에도 큰 기대를 모았다.

“선배님, 이제는 백지에서 시작할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우리는 자랑스러운 서울대학교라는 모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지부 안에서 동문간의 친교를 도모하고 미시간이라는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나아가 한미간의 우호증진에 기여하는, 잘나가는 동창회가 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창립을 맞은 미시간 지부 임원들의 다짐이다.

미시간 지부는 오는 12월 11일, 12시 한인 문화회관에서 창립축하 파티를 열기로 결정하고 준비에 나서고 있다. 미시간 지부는 지역동문들의 모임을 활성화하고 동창회로서의 요건을 충족시켜 가면서 내년 미주총회 평의원회에서 지부 인준절차를 밟게 된다.

미시간 지부 초대회장 취임사



정무형 초대 회장

‘모교는 영원하다 동문은 가족이다 우리는 함께 변화의 주체이다’는 우리 지부의 모토입니다.

인류의 사상 발전에 큰 획을 그은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두가지 면에서 우리를 압도합니다. 그는 가장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모른다는 걸 전제로 항상 질문을 던졌습니다.

가장 뒤늦게 출범한 우리 지부는 항상 겸손한 자세로 즉 모른다는 자세로 동문을 서로 더 잘 알아가는데서부터 우리 활동을 시작할 것입니다.

아는 것은 매우 작으나 모르는 것은 산더미같은 우리들이 가장 먼저 깊이 알고 가까이 지내야 할 가족같은 관계가 동문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미시간 동문들과 이웃 사촌으로 지내는 것은 물론 이 지역에 와서 사는 주니어 동문들에게 특히 도움을 주는 동창회로 지역사회의 모범이 되는 동창회로 성장시켜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결속을 다지면서 동시에 미주지역 동창회와 모교의 발전을 위해 최대한 협조하고 지원하는 동창회 지부가 될 것을 아울러 다짐합니다.

나아가서 우리의 작은 모임에서부터 시작하여 평화와 행복을 인류사회에 전파하는 동문회가 될 것입니다.

‘적은 사랑해도 악마는 버려야 한다’는 정신으로 악을 청산하고 이 땅에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들 각자가 전체를 통찰하는 능력을 가진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도록 노력하는 동창회가 될 것입니다.

뉴잉글랜드 창립 25주년 맞아 기념문집 발간 ... 내년 1월말

내년에 창립 25주년을 맞는 뉴잉글랜드 동창회가 기념문집을 발간한다.

뉴잉글랜드 동창회는 지난 10월 23일 열린 임원/이사회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

편찬위원으로 정정욱, 김정선, 윤은상, 이강원, 이의인, 장수인 등 6명의 동문들을 선임했다.

1차 원고 마감은 내년 1월 31일. 내용은 시, 수필, 기행문, 유학/사업/가족 이야기, 회화/사진 등 모든 작품의 참가

를 환영한다.

동창회 측은 뉴잉글랜드에는 우수한 서울대인들이 일찍부터 학계, 의학계 등 각 분야에 진출, 두각을 나타냈으며 창립 25주년을 맞는 동창회 역사에 길이 남을 문집이 탄생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원고 문의 및 제출: 김정선(jkim@systemic.com), 윤은상(eyoon1208@gmail.com)

미주동창회 1천불 시카고 관악클럽에

노명호 미주동창회 회장이 젊은 세대로 구성된 시카고의 관악클럽에 1,000달러의 기부금을 보내 격려했다. “앞으로 관악클럽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다짐한 노 회장은 “동창회는 앞으로 70, 80, 90 학번 세대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노 회장은 남가주 동창회를 예로 들며 80년대 학번인 최용준 동문이 회장이 돼 원로선배초청 오찬 모임 등 굵직한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전미주 서울대 동문의 후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동창회를 이끌어가는 힘은 동문들의 격려와 후원입니다.

협회의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 주십시오.



제16대 노명호 회장&임원 일동/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

2410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2005

Tel: 213-908-5586 Email: snuausa30@gmail.com



코로나 시대 - 서울대 강의실은 ‘하이브리드’ 학교 · 집 어디서나 수강 가능 방식도입

서울대는 무려 1년 6개월여 동안 비대면 강의를 해왔다. 신입생들은 캠퍼스에 갈 일이 없었고 강의실에서 같은 과 학생들이나 교수를 만날 기회가 없었다. 대학과 동떨어진 대학생활을 해온 것이다.

지난 학기부터 시작된 ‘하이브리드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최소한 캠퍼스 강의실의 직접 수업을 경험하게 됐다.

자동차 동력으로 전기와 개스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게 한 방식을 하이브리드라고 한다. 코로나로 폐쇄됐던 강의실도 두가지 시스템을 동시에 작동시켜 오픈해 진행되고 있다. 즉 하나의 수업 시간에 대면 강의, 비대면 강의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다.

대면 강의란 학생들이 강의실에 출석하여 직접 교수로부터 강의를 들으며 수업을 하는 것이고, 비대면 강의란 학생들이 집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교수의 강의를 듣는 것이다.

동일한 수업시간에 대학교 교실과 학생의 가정에서 동시에 대면, 비대면 강의를 진행되는 것을 하이브리드 강의라고 명명했고 서울대학교는 올해 2학기부터 이 시스템으로 수업을 하고 있다.

교수들과 학생들 사이에는 아직도 엇갈리는 반응들이다. 일부 교수들은 하나의 수업시간에 두가지 방식이 병행돼 혼란스러울 때가 있으며, 강의실에 있는 대면학생들과 집에 있는 비대면 학생들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업준비도 많아지게 됐다고 말한다.

강의실 내에 카메라 장착과 오디오 설비를 화면에 잘 맞게 배치해야 하고, 수업 도구의 사용에도 능숙해져야 한다. 또한 실시간 강좌시에 인터넷 연결과 화질, 음성전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을 해야 한다.

실제로 일부 비대면 학생들은 화질과 음성들에 불만을 표시하는 경우가

있고, 대면 학생들 만큼 교수들과 활발한 의사소통이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다. 토론 방식의 수업에서는 보다 많은 수업준비가 필요하는 등 교수들의 업무 증가도 제기되고 있다. 자칫 대면학생

를 강의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캠퍼스 안에는 2시간 안에 코로나 감염 여부를 확인해 주는 신속검진센터가 설치돼 학생들은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자신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 수업도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준수해서 열린다.
◀ 클래스에 들어가기 전 신속검진센터에서 감염 여부를 확인받는다.

비대면 · 대면 강의 선택할 수 있어 캠퍼스에 신속검진센터 설치 운영

위주의 강의를 될 수 있는 공정성의 문제도 있다.

반면에 자신의 처지에 맞게 대면, 비대면을 골라가며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선택성에서 하이브리드 수업방식을 환영하는 학생들도 많다.

학생들은 수업시간 전에 미리 교수에게 자신이 대면 혹은 비대면으로 할지

강의실 준비도 만만치 않다. 대면 강의에 출석한 학생들의 거리두기를 지키다 보면 강의실 크기가 제한이 돼 학생들을 격일로 출석시켜 하나의 수업을 두 번의 강의로 진행해야 하는 경우들도 자주 발생한다.

거리두기도 방역 1,2 단계에서는 좌석 한칸을, 3,4 단계에서는 두칸을 띄워야

하기 때문에 정부가 발표하는 방역단계에 따라 출석 정원의 제한이 변경된다.

이에 따라 서울대는 수업 수강 인원은 100명 미만으로 제한하고, 초과할 경우 수강 인원을 분산했다.

기존에 강의를 없던 점심 시간을 수업 시간에 포함시키고 오전 9시 이전과, 오후 5시30분 이후, 그리고 주말에도 수업을 진행하며 학생들의 밀집도를 분산시켰다.

식당 운영도 코로나 이후 문을 닫았던 학생회관 지하 식당과, 4층 식당들을 오픈했고 야외 테이블을 설치하면서 투고 도시락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했다.

하이브리드 수업방식이 자리를 잡으면서 진행의 기술적인 측면이 많이 개선되고 경험이 축적되며 점차 문제점들이 사라져 강의에 대한 적응과 만족도는 높아졌다.

서울대학교 입학후에 한번도 강의실에 들어와 수업을 듣지 못했던 코로나 신입생들은 캠퍼스 강의실에 출석해 수업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지난 한학기 동안 하이브리드 수업을 진행했던 교수들은 계속된 개선들을 통해 큰 문제들은 없었으며 이제 하이브리드 강의 방식이 코로나 대학수업의 대세라고 인정하고 있다.

코로나 시대의 학생들 사이에는 아직도 대면수업보다는 비대면 수업을 선호하는 학생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학생들의 요구와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전면적인 대면 수업은 아직 불가능한 상태이다.

그러나 대면 수업에 따른 코로나 전파 우려도 점차 불식되고, 대학측의 효율적인 대처로 대면수업의 지속과 함께 하이브리드 수업방식의 정착은 모교 서울대학교의 새로운 강의 시스템으로 그리고 또 다른 캠퍼스 문화로 정착되고 있다.

은퇴 70세로 늦추면 소셜 연금 '132%' ↑

'리빙 트러스트' 변호사 도움없이 혼자서도 가능

매년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는 메디케어 플랜 변경기간 (Annual Enrollment Period) 이다. 그래서인지 요즘은 메일 박스에 보험회사들의 홍보 전단지까지 수북히 쌓인다. 은퇴의 첫 걸음이 바로 메디케어 가입이다. 공학자가 갑자기 왜 건강보험이냐고 의아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10여년 전 갑자기 한국근무 (KIST 원장) 를 하게 돼 메디케어는 물론 은퇴계획조차 마련하지 못한 채 짐을 싸야했

다. 미국에 되돌아와서야 메디케어에 가입했는데 아내는 제때 가입을 안했다는 이유로 벌금을 물어야 했다. 그것도 평생 죽을 때까지다. 액수가 얼마 안되지만 속이 상했다. 미국서 거의 반백년을 살았고 명색이 대학교수를 지냈는데... 만 65세부터 받게되는 메디케어는 크게 파트 A와 파트 B로 나뉜다. A는 기준 이상으로 납세한 사람에게 공짜이지만 B는 프리미엄 곧 보험료를 내야 한다.

파트 A와 파트 B를 합친 것을 흔히 '오리지널 메디케어' 라고 부른다. 전체 의료비용의 80% 를 메디케어가 커버해주고 나머지 20% 는 본인부담이다.

메디케어는 미국이외의 지역을 커버하지 않는다. 나 처럼 한국에 장기체류할 때 논란이 되는 부분이 파트 B 보험료 납부다. 나중에 미국으로 돌아왔다고 해서 파트 B가 자동적으로 제공되는 것은 아니다. 다시 파트 B를 신청해야 하는데 그동안 중단된 기간에 따라 보험료 외에 벌과금이 평생 부과될 수도 있다.

파트 B 보험료는 2021년 현재 연소득 17만 6,000 달러 (부부합산) 까지는 월 148.50 달러가 부과된다. 17만 6,000~22만 2,000 달러 소득대는 207.90 달러다.

연수입이 50만 달러를 넘게되면 프리미엄이 356.40 달러로 경증 된다. 프리미엄은 소셜 시큐리티 연금에서 공제하고 나머지를 보내준다.

요즘은 파트 C가 대세다. 흔히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Advantage Plan)' 이라고 부른다. 추가로 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메디케어가 커버해 주지 않는 혜택들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한방, 침, 안경, 진단기구, 헬스클럽이용, 교통편 제공 등이다.

파트 C 가입 증가

어드밴티지 플랜은 메디케어 당국의 승인을 받은 민간 보험회사들이 제공하는 것으로 보험사는 정부로부터 가입자 1명 당 일정 금액을 받아 플랜을 운영한다.

그러나 대부분 HMO 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전문의의 정밀진단이 필요할 경우 주치의의 리퍼 (refer) 가 있어야 한다. 가입자가 해당 보험사의 네트워크

속에 속한 전문의들만 선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메디케어는 파트 D, 곧 처방약 플랜을 선택해야 모든 절차가 끝난다. 파트 D가 포함되어 있는 어드밴티지 플랜에 가입하면 처방약도 자동적으로 커버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꼭 소개해 드리고 싶은 플랜이 있



한홍택 박사의 셀프로 하는 은퇴계획

한다. 쉽게 말해 어드밴티지 플랜의 단점을 모두 커버하는 보험이다. 물론 추가로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부담은 있다.

메디갭의 장점은 메디케어와 계약이 돼있는 미국내 모든 의료진과 병원들로부터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폐암진단을 받았다고 가정하자. 메

더슨에서도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메디갭은 최초 메디케어 수혜자가 됐을 때 구입하는 것이 가장 저렴하다. 1년이 경과되지 않았을 경우 과거나 현재의 병력을 묻지 않고 무조건 가입시켜 주는, 이른바 '개런티 이슈 (guarantee issue)' 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이 기간을 놓치면 메디갭 가입이 까다롭다. 기저질환이 있거나 암환자의 경우 보험사가 가입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설사 가입이 됐더라도 보험료가 큰 폭으로 올라간다.

메디케어 가입 자격이 주어졌지만 계속 일을 할 경우는 회사가 제공하는 보험과 메디케어를 비교해 선택하도록 한다. 이 경우 직장 보험이 있더라도 파트 A는 가입하는 것이 안전하다.

그러나 파트 B는 프리미엄을 내야 하기 때문에 나중에 은퇴할 때 가입하면 된다. 이때 소셜시큐리티 오피스에 이같은 사실을 보고해야 나중에 벌과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메디케어 못지 않게 중요한 부분이 소셜시큐리티 연금이다. 언제 신청할 것인가에 관심이 모아진다. 2021년 기준, 완전은퇴연령 (full retirement) 은 66세로 100% 를 받는다. 그러나 66세에 은퇴하지 않고 70세까지 미룬다면 한해 8% 씩 연금이 오른다.

70세 이후는 그러나 이같은 혜택이 없어진다. 반면 62세에 조기은퇴를 신청할 경우는 66세 때 받는 수령액의 73% 가량을 받는다.

요즘은 백세시대를 맞아 수령액을 최대한으로 늘리는 시니어들이 늘고 있는 추세다. 62세에 73%, 66세에 100%, 70세에 132% 를 받을 것인가. 신중히 결정할 일이다.

배우자가 일을 안했거나 세금을 적게 냈을 경우도 연금을 받는다. 이를 '배우자 베니핏 (spousal benefits)' 이라고 한다.

메디케어 늦으면 평생 '벌금' 내야 요즘은 '어드밴티지 플랜'이 대세 '메디갭' 65세 때 가입하면 저렴



다. '메디갭 (Medi-Gap)' 이다. 보충 보험 (Supplemental Plan) 이라고도

디갭을 갖고 있다면 이 분야 세계최고의 병원으로 알려진 휴스턴의 MD 앤



1인당 연 1만 5천 달러까지는 증여세 없어 손주들엔 선물, 불특정 다수 이웃엔 도움

상대 배우자 수령액의 절반을 받는다. 가령 아내가 10년 이상 세금을 내 연금수혜자격이 주어졌더라도 남편 연금의 50%와 비교해 그 중 액수가 많은 것을 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남편의 연금이 2,000 달러인데 아내는 900 달러를 받게 된다고 치자. 이 경우 배우자 베니핏을 신청하면 아내는 남편의 절반인 1,000 달러를 받게 돼 100 달러의 이득을 보게 된다.

그러나 배우자 베니핏은 연금수령자 나이가 66세 때까지로 제한된다. 수령액을 최대로 끌어올리겠다고 남편이 70세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신청하는 경우도 있는데 소셜 시큐리티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아내가 배우자 베니핏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남편이 완전은퇴연령인 66세가 될 때까지다. 부부가 이혼한 경우도 10년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했다면 배우자 베니핏을 신청할 수 있다.

리빙트러스트 작성

다음은 리빙 트러스트 (living trust) 작성이다. 상속과 재산분배 등의 절차를 명시해 놓은 문서다.

요즘은 인터넷에 관련 정보가 넘쳐나 변호사 도움없이 혼자서도 할 수 있다.

자신의 상황에 적합한 샘플을 골라 작성하면 된다. 나는 50 달러 (법원 파일 비용)에 모든 절차를 끝냈다. 리빙트러스트는 내용을 수시로 바꾸거나 수정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38개 주는 상속세 없어

리빙 트러스트 없이 사망하면 나중에 자녀들이 법원에서 상속절차 (probate)를 밟아야 한다. 이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자녀들끼리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 과정에서 자칫 집안의 숨기고 싶은 것들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다.

캘리포니아에선 주택 등 16만 6,000 달러가 넘는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리빙 트러스트 없이 사망하면 법원 프로베이트를 통해 재산이 분배된다.

상속과 증여와 관련해 꼭 알아둬야 할 사항이 있다.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미국의 38개 주는 상속세 (estate tax)가 없다. 그러나 연방정부는 상속재산에 세금을 매긴다. 부모 양쪽으로부터 상속을 받았다면 2021년 현재 2,340만 달러까지는 세금이 없다. 하지만 2026년에는 이 액수가 2018년 전의 기준인 1,000만 달러 (인플레이션 이전)로 내려가게 돼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법원 '프로베이트' 땀 자녀끼리 상속 분쟁 기부는 부의 사회환원, 삶의 마지막 '보람'

캘리포니아에선 연간 1인당 1만 5,000 달러까지는 세금 (gift tax)이 붙지 않는다. 증여 곧 기프트는 자녀 뿐만 아니라 손주 등 누구에게나 적용된다. 1만 5,000 달러의 상한선만 지키면 많은 사람들에게 기부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은퇴 후 생산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주식투자외엔 없을 것 같다. 내 경우 기계공학을 전공한 것이 도움이 됐다. 일찌기 테슬라의 성장가능성을 봐 손주들에게 테슬라 주식을 사서 기프트로 줬다. 덕분에 대학 학자금 걱정을 크게 덜었다.

주식투자라도 억만장자가 될 수 있을까. 우리

세대는 이미 늦었지만 손주세대에는 가능할 것 같다. 가령 15살된 손주에게 10만 달러치의 주식을 사서 증여했다고 가정하자. 워런 버핏처럼 연 21%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면 손주가 65세 은퇴했을 때 4억 달러로 늘어난다. 더 적극적으로 애플이나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빅 테크 기업에 돈

을 묻어 두어 연 28%의 수익을 거두게 된다면 그 금액은 무려 230억 달러로 '둔갑'한다. 결코 허황된 얘기는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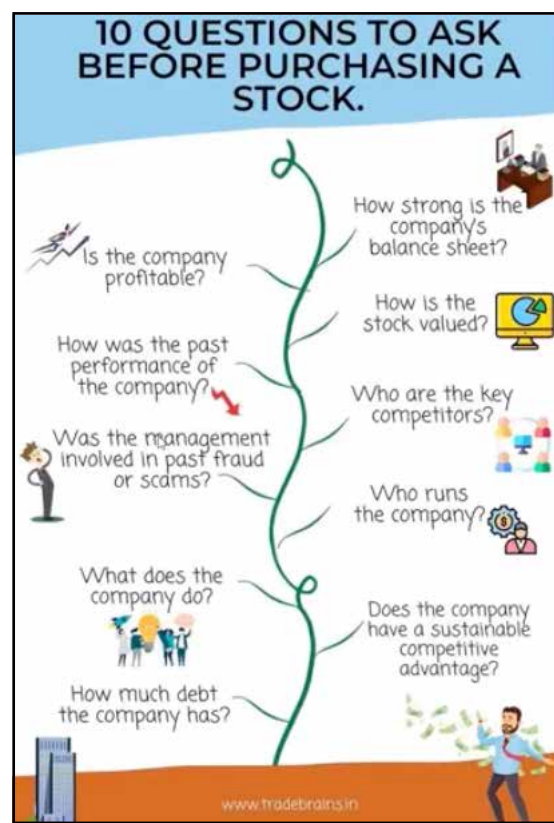
우리 세대에는 그러나 뮤추얼 펀드나 상장지수펀드 (ETF)를 잘 선택해 투자하는 것이 제일 안전한 것 같다. 펀드는 보통 4가지가 있는데 본인이 감수할 수 있는 위험도에 따라 선정하면 된다.

인생은 다음의 3단계로 나뉘어 진행되는 게 아닐까 한다. 처음엔 배움 (learning), 이어 돈을 벌고 (earning), 그리고 나누는 (sharing) 것이다. 구태여 자녀에게 유산을 남겨줄 필요가 없다면 재산을 이웃과 나

눠쓰는 곧 기부하는 것이 부의 사회환원이자 삶의 마지막 보람이 아닐까 생각한다.

한용택 박사는

- * 공대 기계공학 (60)
- * Penn State 기계공학 박사
- * UCLA 기계항공학부 명예교수



How to Make Your Grandchild a Billionaire at Retirement?

\$100k in Stock at 15, Retire at 65.

	Yearly Yield Rate	Amount at 65	Averaging Period
S&P 500	8%	\$0.0047B	1957-2018
Buffett	21%	\$1.378B	1951-2020
AAPL, Amazon, MSFT	28%	\$22,935B	2011-2020



시카고 세종문화회 기금모금 '성료'

'심은경' 전 주한미국대사 한인사회의 지원 당부

시카고의 세종문화회(공동 회장: 전현일·농대 62, 박계영·의대 90)가 지난 10월 20일 버추얼 기금모금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이벤트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해 유튜브 비대면으로 열렸다. 수재너 송 전 CBS 2 앵커의 사회로 약 50분 동안 영어로 진행된 행사는 박종희(루시 박) 사무총장(의대 69)의 연혁 보고에 이어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미국대사의 인사말, 유명 인플루언서 마크 피터슨 박사와의 인터뷰, 블랙 오크 앙상블(Black Oak Ensemble)의 현악 3중주, 힙합 공연, 영문 시조 발표 등 다채롭게 꾸며졌다.

지난 1970년대 평화봉사단원으로 한국에 파견된 스티븐스 대사는 "이제 한국은 경제 문화적으로 꽃을 피웠다(blossomed)"고 놀라움을 표시하며 "내가 보고 겪었던 50년 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가왔다"고 말했다.

스티븐스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제 21대 주한미국대사를 지냈다. "안녕하십니까. 심은경입니다." 대사의 당시 부임 첫 성명은 외교가에서 지금도 널리 회자되고 있다. 평화봉사단원으로 활동했을 때 한국인들이 지어준 이름이 바로 심은경이다. 미국대사로는 최초로 통역이 필요 없을 정도로 한국어가 유창한 그는 충남 예산의 중학교에서 영어교사로 일하며 한국어를 배웠다. 이 때문에 한국문화나 언어의 이해에 있어서 역대 최고의 미국대사라는 평가를 받는다.

스티븐스 대사는 "오늘날 미국에서 'K'는 가장 '쿨'한 단어로 통한다"며 "K 팝, K 드라마 등은 '인기있는 어휘(popularized vocabularies)'로 자리잡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시조에 대해 언급, 눈길을 끌었다. 한국 시골에서 지낼 때 시조를 배웠다고 밝힌 그는 한국의 열과 문화를 이해하는 데 시조가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스티븐스는 세종문화회에 대한 한인사회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재정 지원을 당부했다. 그는 외교관 은퇴후에도 '코리아 소사이어티' 이사장을 맡는 등 한국과의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블랙 오크 앙상블'은 비토리오 몬티의 '차르다시(Csardas, 헝가리의 민속무곡)'를 연주해 시청자들로부터 큰



사진 왼쪽부터 수재너 송 전 CBS 2 앵커, '심은경'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 미국대사, 한국학 인플루언서 마크 피터슨 박사.

피터슨 박사, 한국인들은 '우물 밖 개구리' 시카고 힙합그룹의 '청산리 벽계수' 공연

박수를 받았다. 미국과 유럽 무대에서 활약하고 있는 앙상블은 바이올리니스트 데이비트 컨리프가 중심이다. 특히 세종문화회 창립 때부터 꾸준히 후원하고 조언을 아끼지 않고 있다.

국이 아니라 중국(장자)이다. 일본에도 이와 비슷한 표현이 있다.

피터슨 박사는 "한국인들은 절대 '우물 안 개구리'가 아니다. '우물 밖 개구리'라고 해야 적절한 표현이다"라고 강조했다. 한국이 대단한 나라가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수재너 송과 마크 피터슨 박사와의 대담. 피터슨은 한국학 분야에선 거의 팬덤(fandom) 수준으로 영향력이 상당하다. 그가 운영하는 유튜브 프로그램 '우물 밖 개구리(the Frog Outside the Well)'는 회원가입자가 거의 20만 명에 이른다. 세종문화회 이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피터슨 역시 '배도선'이란 한국이름을 갖고 있다. 본관은 전남 '나주.' 배산지로 유명한 곳이어서 나주를 택했다고 한다.

피터슨 박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왜 '우물 밖 개구리'라고 지었는지 설명해 감동을 줬다. 시야가 좁거나 자신이 경험한 것만을 고집할 때 흔히 인용하는 문구 '우물 안 개구리'는 원산지가 한

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지요."

그의 한국과 한국문화 예찬은 끊이지 않는다. "강남을 보세요. 시카고, 뉴욕보다 더 선진화된 도시입니다." 세계인들이 한국을 대단한 나라라고 인정하고 있는데 한국만이 아직 한국을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안타깝다는 것이다.

피터슨 박사가 세종문화회에 끌리게 된 계기는 다름아닌 시조. 미국 초중고교에서 '하이쿠'(17자로 된 일본 특유의 단시)가 인기를 끌고 있어 솔직히 배가 아팠다고 털어놨다.

"하이쿠는 성공했는데 (더 우수한) 시조가 성공못할리 없잖아요."

처음 시조경연대회를 열었을 때 비한국인(non-Korean)의 비율은 25%를 넘지 못했다. 그러나 지금은 97%나 된다. 불과 10여 년 사이에 비약적인 성과를 낸 것이다. 피터슨 박사는 "이 모두 세종문화회 스태프들의 헌신, 특히 루시 박 사무총장의 리더십이 크게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시조 장원으로 뽑힌 엘리스 데이빗슨(휴스턴의 고교 역사교사)의 작품(Downsizing)을 소개했다. 내용이 매우センチ멘탈해 실재를 바탕으로 만든 것이냐는 질문에 100% '상상(imagination)'으로 썼다고 말해 웃음을 안겼다.

보스턴에서 과학을 가르치고 있는 니아 김슨의 시조는 한국인들이라면 누구나 가슴 한 켠에 묻어두고 있을 '분단의 슬픔과 한'을 표현해 시청자들을 뭉클하게 했다.

김슨은 일부러 타이틀을 달지않았다고 했다. 시조를 읊다보면 주제가 DMZ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어서다.

힙합그룹 'Elephant Rebellion'이 공연한 'Be Here'는 힙합에 시조를 접목시켜 관심을 폭증시켰다. 그룹이 부른 노래는 조선 최고의 명기 황진이가 남긴 시조 '청산리' 벽계수를 바탕으로 했다. 뮤직 비디오는 시카고 다운타운과 호수가 어우러져 새로운 감흥을 불러 일으켰다. "청산리 벽계수야 수이감을 자랑마라 일도창해하면 다시 오기 어려워라 명월이 만공산하니 쉬어간들 어찌리..."

* 기부: SejongCulturalSociety.org/donate



Untitled

by Nia Gibson

The tangled wire snarls a red scare
 Across the heart of a nation
 Festering feelings of loss
 A connection I never knew
 In shadows, life thrums a new beat
 Turning red ichor into green.

니아 깁슨 (보스턴)



Downsizing

by Alice Davidson

That sweater, so warm and soft - yet
 full of holes, hangs unworn.
 "Let's toss it!" Downsizing means
 tough decisions. "No one wears it."
 "Wait!" I cry. "Grandma made that
 when I was young. It still fits."

엘리스 데이비슨

세종문화회는... 박종희 동문의 아이디어가 결실 맺어 주류사회 지원 필요해 서울대서 독립 음악 수필 등 대회 열어 한국문화 소개



세종문화회는 박종희(의대 69) 동문의 아이디어가 결실을 맺은 단체다. 주류사회의 지원이 필요해 서울대에서 독립, 비영리기관으로 거듭났다.

세종문화회(Sejong Cultural Society)는 지난 2004년 시카고 동창회 이사회 결의로 발족한 비영리 법인이다.

문화회는 당시 동창회 회장 전현일(농대 62) 동문과 박종희(의대 69) 동문이 앞장 서고 박창만(공대 56), 임이섭(미대 54), 강영국(수의대 67), 구경희(의대 59), 박영규(농대 57), 임현재(의대 59), 한재은(의대 59), 황치룡(문리 65), 김병윤(문리 65), 박연희(보건대 64), 정호(공대 62) 동문 등이 추진해 탄생됐다.

당초 세종문화회의 아이디어를 낸 이는 박종희 동문이다. 시카고의 중국문화원이

매년 피아노/바이올린 경연대회를 열고 있는데 반드시 중국의 음률이 들어간 곡을 연주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던 것. 박 동문은 한인사회에도 이 같

은 단체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이다.

박 동문은 동창회 이사회에 문화회 설립 안건을 올렸다. 결과는 만장일치 통과. 세종문화회가 탄생한 배경이다. 당시 동창회가 문화회 발족 종잣돈으로 배정한 예산은 5,000 달러. 2004년 10월 이 종잣돈으로 제1회 세종음악경연대회를 열 수 있었다.

그러나 한인사회와 주류사회로부터 지원을 받

재정은 계속 지원해주기로 했다.

박종희 동문은 문화회 출범부터 현재까지 사무총장을 맡아 실무를 총괄하고 있다. 비서울대 출신이 회장을 맡기도 했으나 주력은 아무래도 서울대다. 현 이사장(김호범, 상대 69)도 서울대를 나왔다.

한국의 전통문화가 미국주류문화의 한 요소로 뿌리내리도록 도와 후세들이 한국의 문화요소가 들어가 더욱 풍요로워진 미국문화를 경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세종문화회의 설립 취지다.

이에 따라 세종음악경연대회, 세종작문경연대회(수필과 시조 부문, 미국과 캐나다 대상)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시조의 인기가 높아져 올해는 처음으로 세계를 대상으로 세종국제시조경연대회(영문 시조)를 추가로 열었는데 19개국 이 참가하는 성황을 이뤘다.

국제작곡경연대회 개최

2~3년에 한번씩은 세종국제작곡경연대회를 열고 있다. 아리랑을 비롯한 우



힙합 그룹 '엘레판트 리벨리언'

위해 시조와 현대음악을 접목한 곡들을 기성 작곡가들에게 의뢰하는 한편 그 곡들의 연주회를 개최, 평론가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문화회는 공립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시조 워크숍을 개최하고 시조 교육자료들을 개발, 제작하는 등 시조 보급에 힘을 쏟고 있다.

교사들로부터 시조를 배운 학생들이 경연대회에 참가하는 숫자가 매년 늘고 있으며 수상자들도 거의 대부분 비한인들(non-Korean)이어서 문화회 측은 고무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다양한 교육자료 확보

문화회는 일선교사들이 수업시간에 시조를 가르칠 수 있도록 시조강의 동영상, 시조학습플랜 등 다양한 교육자료들을 세종문화회 웹사이트에 올려놓고 있다.

이외에도 작문 경연대회(수필 시조 등) 수상자들과 연주회 동영상, 수상자들의 소감, 심사위원들 프로필 등 많은 자료들을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www.SejongCulturalSociety.org) 김호범 이사장과 전현일·박계영 공동

회장은 세종문화회의 프로그램들이 더 확장되고, 앞으로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대 동문들의 물질적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국과 유럽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블랙 오크 앙상블' 현악 삼중주단. 세종문화회 창립 때부터 무료 공연을 해주는 등 후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려면 동창회로부터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에 공감대를 이뤄 국제청(IRS) 등에 비영리 독립법인으로 등록한 것이다. 동창회 측은 필요한 인력과

리의 전통 가락이나 장단이 들어간 곡을 만들어 출품하게 해 주류사회에 널리 홍보하고 있다.

특히 시조를 더욱 흥미있게 홍보하기



나두섭의 포토 에세이

(의대 66)

선인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척박한 환경에서 자라지만 꽃은 ‘황홀’
선인장 사잇길 거닐면 스트레스 사라져

선인장은 언뜻봐도 예사롭게 보이지 않는 식물이다. 거의 모든 식물들은 풍성한 잎사귀를 자랑하는데 선인장의 잎은 가시로 변해 있다. 잘못해서 찢리면 통증은 물론이고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특이한 모양새 때문에 한국에서도 흔히 보아왔지만 미대륙이 원산지여서 여기서는 흔하게 볼 수 있는데 특히 사막성 기후를 가지고 있는 남가주에서는 도처에서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꽃을 좋아하는데 사람마다 특별히 좋아하는 꽃이 있다. 어떤 사람은 장미, 또는 백합, 아니면 튜립을 좋아하고, 그리고 오키드, 카네이션 등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가하면 하잘것 없어 보이는 야생화에 애착을 느끼는 사람도 있다.

선인장꽃을 좋아한다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은데 그것은 꽃을 둘러싸고 있는 가시들 때문에 두려움을 느껴서 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선인장꽃은 신비스러울 정도로 아름답다.

꽃잎의 색깔은 정열적이고 반짝거릴 정도로 눈부시다. 수많은 수술들은 가운데 자리잡은 암술을 여왕처럼 감싸고 있다. 자세히 볼수록 예사롭지 않게 보이는 꽃이 선인장꽃이다.

선인장은 오해도 많은 꽃이다. 어렸을 때 선인장은 100년에 한번 꽃이 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것은



“선인장 같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멋있는 꽃을 피우는 것이 있다는 것은 눈여겨 볼 가치가 있다”

선인장이 처음 꽃필 때 까지가 수년에서 수십년이 걸리는 것도 있어서 생긴 말이라.

이곳 남가주에서는 겨울철 몇달을 제외하고는 사막 정원에 가보면 선인장꽃을 언제나 볼 수 있다.

선인장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과도 비교될 수 있지 않을까?

야생의 선인장은 대체로 물이 별로 없는 척박한 환경에서 자란다. 대부분의 다른 식물들과 달리 잎은 가시로 변해 있다. 그러나 어느 꽃에도 뒤지지 않는, 그리고 보는이로 하여금 때로는 황홀감을 일으킬 수도 있는 찬란한 꽃을 피운다.

세상에서 엄청난 영향을 끼친 사람들

도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우뚝선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헬렌 켈러는 시력과 청력에 장애가 있었지만 저명한 작가, 교육자가 되었다.

넬슨 례독은 상대방과 대적해야할 군인이었는데 한쪽 눈의 시력을 잃고 오른팔이 잘려나간 장애가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성한 사람들도 쉽게 해낼 수 없는 위대한 업적을 이루어 냈다.

수월하게 살면서 좋은 일을 해낼 수 있는 것보다 더 바람직한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선인장 같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멋있는 꽃을 피우는 것이 있다는 것은 눈여겨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살면서 피할 수 없는 것중의 하나는

스트레스다. 이것은 또 만병의 근원이 된다고도 한다.

물론 스트레스가 직접 병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지만 그로인한 호르몬과 면역력에 대한 영향으로 간접적으로 관여한다.

세상은 어떻게 하면 이 스트레스를 없앨 수 있는가에 대하여 원하는 말로 홍수를 이루고 있다. 해결법이 여러가지가 있다는 것은 신통한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스트레스 받을 만한 것은 피하라고 하지만 피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혹은 친한 친구에게 다 털어 놓으라고 한다. 그러나 자기의 문제를 계속 해서 언제든지 들어줄 수 있는 친구를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자연과 접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구름을 주황색으로 물들이며 떠오르는 태양이나 바닷물에 반짝이며 떨어지는 붉은 태양을 볼 때는 자연의 아름다움에 빠져 들 수 밖에 없다. 또한 이른봄 언덕에 깔려있는 노란색 민들레꽃을 볼 때, 이른 아침 안개의 바다로 뒤덮인 골짜기를 볼 때, 눈꽃으로 장식된 겨울 숲속의 흰눈으로 덮힌 작은 언덕길을 바라볼 때도 스트레스는 사라진다.

그리고 경이로운 모습을 한 선인장 꽃들 사이로 난 굽이진 작은 길을 오르내리는 동안은 누구나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팬데믹의 시대... 새로운 일상을 찾는다



가을 맞이 미대 동문 13인전 한달간 할리우드의 S-갤러리 서양화 조각 공예 등 총 25점 본국 포함 동문 상설 전시도



미주지역 미대 동문 13인전이 LA 할리우드의 S-갤러리(대표 한귀희, 미대 68)에서 11월 6일부터 12월 6일 까지 한달간 열고 있다.

이번 전시회는 코로나로 미루어졌던 동문 작가들의 신작들을 중심으로 전시가 이루어졌으며 지난 5월 이후 두번째 동문 화가들의 작품전이다. 59학번에서 02학번까지 세대를 아우르는 동문들이 전시회에 참여했다.

이번 전시회 참가 동문은 성수환, 김구자, 윤태자, 심영자, 서동현, 황영애, 한석란, 백혜란, 장원경, 이명규, 박다애, 김경애, 이상훈 등 모두 13명. 서양화, 조각, 공예 등 25개 작품이 출품됐다.

전시회가 열리는 S-갤러리는 LA 코리아타운 인근 할리우드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코리아타운 제 1관에 이어 지난

해 오픈한 제 2관이다.

S-갤러리의 S는 서울대 이니셜이다. 남가주 총동창회장과 미대 동창회장을 역임한 한귀희 대표는 “S-갤러리 1, 2관 모두 코리아타운 접근성이 좋은 곳에 위치해 있으며 한국과 미국에서 활동하는 서울대 출신 작가들은 물론 비동문작가를 위해 비영리단체로 운영된다”고 말했다.



서울대 미대 동문전 출품작가들의작품. (맨 위출원쪽부터시계방향으로) 성수환 작품, 김구자 작품, 윤태자 작품, 심영자 작품, 황영애 작품, 한석란 작품, 백혜란 작품, 장원경 작품, 이명규 작품, 박다애 작품, 김경애 작품, 이상훈 작품, 서동현 작품.

장소: 5151 Romaine St.
Los Angeles.
문의: (818) 808-8185





박 변의 영화 내멋대로 보기

오징어 게임 - 과연 대단한 작품일까 모순적 이론의 썩은 냄새나는 폭력 드라마

세상이 지금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 때문에 난리다.

\$4.56 짜리 달고나 킷이 나오는가 하면 외국인들은 또 다른 한국 애들이 하는 게임을 찾고 있거나 하고 있다고도 들린다. 그리고 당연히 속편이 출시될 것이다. 많은 부분 속 시원히 설명없이 끝을 내는 것으로 보아서 이미 첫편 만들때부터 속편을 염두에 두고 제작했음은 물론이나 마나 한 얘기다.

그러나 불행히도, 과연 이 드라마가 그렇게 뜨거운 관심을 불러 일으킬만큼 대단한 것인가 하는데는 상당한 의문이 있다.

게임 주최자들은 신사인척 하면서,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되며, 공정을 너무나 강조한다. 참가자들 의사에 의해 게임을 중단할 수 있다고도 한다. 하지만 시청자들도, 게임 주최자들도, 게임 참가자들도 너무 잘 안다. 게임은 결국 게임 주최자들에 의한 살인 아니면, 게임 참가자들끼리의 살육이라는 가장 극악한 형태의 폭력이



오징어게임은 456억원의 상금이 걸린 서바이벌 게임에 참가한 사람들이 최후의 승자가 되기 위해 목숨을 걸고 극한 게임에 도전하는 내용을 담았다. 살인을 미화하는 등 폭력을 부추긴다는 논란도 함께 일고 있다.

허구를 빌미로 변태와 살인 미화, 이해 어려워 황동혁 감독의 '수상한 그녀'는 수작, 비교돼

가 안된다. 456명 게임 참가자들은 너무나 잘 안다. 결국에는 다 죽고 하나만 살아 남으리라는 것을. 그래서 자신을 제외한 모든 게임 참가자들은 제거의 대

이루어 지는데, 아무리 허구라고 하지만 너무나 개연성이 떨어진다.

형사의 잠입도 마찬가지다. 잠입한 형사는 매번 발각될 위험에 처하는데, 상관도 없고, 경고를 할 뿐 언젠가 멀쩡해서 그곳의 모든 비밀을 다 뒤진다. 몇백명씩 살인을 저질러야 하는 조직의 비밀 보호 안전망이 이렇게 엉성할 수가 없다.

그리고 그런 게임이 이전이나 매년 있었음을 암시하는데 몇백명씩 실종되고도 그렇게 버젓하게 게임을 오래 할 수 있을까? 그런 시설 공사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양심의 가책이나 환멸

을 느낀 게임 진행 요원들도 있을 것이고, 직접 간접으로 게임과 관련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텐데 몇년동안 경찰이나 사법 당국에 들키지 않고 비밀 유지가 그렇게 쉬울까?

드라마는 물론 허구다. 하지만, 아무리 허구라도 그럴듯한 개연성을 지녀야 공감과 재미가 있는 법이다.

그런 면에서 너무 허구임이 전면에 드러난다는 점에서 오징어 게임은 실패작이다.

더구나 이 드라마는 시대적 배경이 현대인데, 발상은 미래나 환타지다. 더구나 순진한 어린이들 게임을 살인게임으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어린 시절 즐거운 놀이의 추억을 망쳤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폭력과 욕설 투성인 이 드라마를 나는 몇번씩 그만 보고 싶은 충동을 느꼈는데, 그래도 끝까지 본 이유는 과연 어떤 식으로, 왜 이런 살인 게임을 주최했는지 설명을 들어보고 싶어서였다.

그러나 결론은 역시 그저 그런 어찌보면 뻔한 이유였다. 언젠가 TV에서 채널을 여기저기 돌리다가 체코슬로바키아를 무대로 한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체코로 놀러 오는 처녀들을 납치해다가 고성인지 창고에 가둬 놓고 돈 많은 부자들이 돈을 내고 원하는 방식으로 직접 그들을 죽이는 영화였다.

그런 영화나 오징어 게임이나 차이가 무엇인가? 돈이 너무 많아 주체를 못하고 이 세상의 모든 쾌락을 소진한 나머지, 이제는 살인 이외에는 흥미를 못 느끼는 정신 이상 계급들의 변태적인 유희.

왜 우리는 이런 저급한 폭력과 변태에 열광하는 것일까? 금으로 만든 돼지나 동물가면을 쓰고 살인을 즐기며 희희낙락하는 인간들을 그린 장면에서는 불쾌감과 구역질을 참을 수가 없었다.

어린이들 게임을 소재로 했다는 점은 참신한 발상이다.

1편에서 말쑥한 양복 차림의 미남(공유분)이 주인공과 딱지 치기를 하고, 매년 지는 주인공에게서 돈을 받는 대신 뺨을 때리는 장면은 신선하다. 이 드라마에서 인상적인 부분은 오직 그것 뿐이다.

그리고 영화나 드라마에서 어떤 사회성 있는 메시지를 담는 것을 싫어하는 나이지만, 우리 사회의 부조리, 불공정, 비리들(외국인 노동자 착취, 기독교인들의 위선, 탈북자 착취)을 비판하고 있는 점은 사 줄만 하다.

황동혁 감독의 다른 영화 '수상한 그녀'는 수작이다. 아주 재미있게 잘 만든 영화였는데, 이 영화와 비교하면, 오징어 게임은 썩은 오징어 냄새만 가득한 쓰레기에 불과하다.

그런 점에서 너무 황동혁 감독에 대한 실망이 크다. 씹쓸, 음울, 불쾌, 구역질... 오징어 게임을 보고 난 후의 나의 느낌은 오로지 이것밖에 없다.

글= 박준창 변호사(인문 79)



◀ 오징어게임은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황동혁 감독은 시즌 2를 구상 중이다.

▼ 잔인한 게임이 펼쳐지고 있는데도 전세계적으로 대박을 만들어 냈다.



며, 게임의 규칙은 결코 공정하지도 않고, 참가자들에게는 선택의 여지도 없다는 것을. 한 마디로 게임 주최자들의 사탕 발림 아바위에 불과하다.

이런 점에서 드라마는 너무 모순되는 것이 많은데, 초반부에서는 폭력을 행사하는 게임 참가자들을 죽인다. 하지만 후반으로 가면서 살인을 비롯한 모든 폭력을 구사하여도 죽임을 당하지는 않거나 아무런 제재가 없다.

게임 참가자들의 태도나 의식도 이해

상이지 친구나 동료가 될 수가 없다.

하나라도 더 빨리 죽을수록 더 유리한데, 주인공 성기훈을 비롯한 몇몇 게임 참가자들의 다른 약한 사람 보호하기, 감싸주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다. 더 더구나 그들은 대부분 오히려 적이거나(조폭과 탈북자 강세벽, 성기훈과 강세벽), 사회에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는데 말이다.

더구나, 그런 장소에서 죽은 자들의 신체 장기를 적출하고 판매하는 행위가

웨스트 버지니아 산행기

‘달리 사즈’ 블루베리 단풍은 명품 ... 힐링 축제



블루베리 단풍.



웨스트 버지니아의 하이킹 명소 ‘달리 사즈 야생지’ 로 동문들이 산행에 나섰다. 마칩 단풍시즌이어서 산행의 즐거움을 만끽했다.

산세가 아름답기로 유명한 웨스트 버지니아에는 가을이면 블루베리 단풍으로 유명한 ‘달리 사즈 야생지(Dolly Sods Wilderness)’가 있다.

웨스트 버지니아 ‘머낭거힐러 국유림(Monongahela National Forest)’ 내에 있는 ‘달리 사즈 야생지’는 해발 4,700 피트의 고원지대로 1만7,776 에이커 규모다.

이곳은 마치 캐나다 툰드라의 느낌을 주는 블루베리 나무 등의 나즈막한 관목들이 넓게 펼쳐진 목초지를 이루며 멋진 경관을 만들어 낸다.

1킬로에 1달러 기부

이날의 산행은 워싱턴지역 한인교회협의회, 워싱턴 한국일보, 워싱턴 한인복지센터가 공동 주최하는 구호기금 마련을 위한 ‘사랑 나눔 걷기 대회’의 참가를 겸하고 있어서 의미가 있었다.

1킬로미터당 1달러를 한인복지센터의 ‘사회 안전망 프로젝트’에 기부하게 되는데, 이날의 산행으로 우리는 약 288달러를 아홉명의 참가자가 기부할 수 있었다.

힘한 부슬비 주행길

이날, 10월 9일은 비가 올 듯 말 듯, 가을의 문턱으로 들어 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날씨의 토요일이었다. 아침 6시, 달리 사즈 야생지 입구를 향해 출발했다.

가는 길부터 부슬 부슬 가을 비가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고, 3시간쯤 달려 웨스트 버지니아의 동쪽에 있는 앨러게니 산(Allegheny Mountains)의 머낭거 힐러 국유림 근처에 이르니 이미 짙은 안

개와 부슬비로 바로 앞도 볼 수 없어서, 운전이 아주 위험하고 어려웠다. 더구나 편도의 오솔길을 운전하며 올라 가는데, 앞에서 내려오는 차라도 만날 때에는 등골이 오싹했다.

‘이런 날씨에 몇 분이나 오셨을까? 60년대, 70년대 학번 선배들과 사모님

산행 초보자인 나로서는 이 상황을 이해하기 어려웠다. 한 선배님 커플은 그날의 산행을 포기하시고 집으로 돌아가셨다.

관록의 선배 등산인들

그렇게 시작된 산행은 진흙 바닥과 등

하며 온 힘을 다해 일행을 따라 걸었다. 꿀같은 점심을 먹고 난 후, ‘혹시 힘든 선배님들 계시면 여기서 같이 쉬다가 내려올 때에 합류할 수 있습니다’라고 제안을 했지만, 나를 제외한 모든 분들은 중간에 쉬실 필요가 없으셨는지 제안은 제안으로 끝났다.

붉은 계곡

오후에 안개가 조금씩 걷히면서 아름답고 붉게 물든 나즈막한 계곡들이 눈에 들어왔다. 수많은 사람들이 산행을 즐기고 있었다. 다양각색의 사람들이었지만 한결같이 즐거운 모습이었다.

우리도 이곳 저곳의 경치를 카메라에 담았다. 사모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여러 배경을 두고 열심히 찍어 주시는 선배님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지나가는 등산객에게 이런 저런 말을 걸며, 일행에서 벗어나 나만의 시간을 즐기시는 선배님도 즐거운 모습이셨다. 모두 즐겁고 건강한 모습이셨다.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인지 돌아

나오는 길은 훨씬 짧았던 것 같다.

워싱턴 디씨 지역의 단풍 명소 중 한 곳인 ‘달리 사즈’에서 동문 선배님들과 돈독한 분위기에서 산행을 마치고 돌아 오는 길에 웨스트 버지니아의 마을 장터에 들려 그 곳의 수공예 작품들과 지역 음식 그리고 실물 라마까지 구경한 것으로 올해의 단풍 구경은 충분하였다.

글 · 사진= 한정희(미대 81)



‘달리 사즈’ 공원 푹말 앞에서 찍은 산행 기념사진. 모두 10여 명의 동문들이 참가했다.

들이 운전하고 오시는데, 괜찮으셨을까?’ 내심 걱정도 됐다.

가까스로 푹말이 있는 입구에 다다랐을 때에 이미 여러 선배님들은 도착해 계셨고, 여유롭고 즐거운 표정으로 우리를 맞아주셨다. 또 한번 동문 선배님들의 관록과 내공을 느낄 수 있었다.

입구에는 수 많은 등산객들이 비 오는 날씨에 뭐가 그리 좋은지 환한 얼굴로 커다란 배낭들을 메고 산행을 준비하고 있었다.

근 바위들, 웅덩이 그리고 계곡을 지나고 건너고 미끄러지고 빠지고 하면서 진행됐다. 안개가 짙어서 오전 경에는 풍경이 드러나지 않았고, 가끔 텐트를 치고 야영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었다.

부슬 부슬 계속되는 부슬비를 맞으며 걷고 있는데, ‘이런 날씨가 산행하기에는 최상의 날씨지’라는 소리가 여기 저기에서 들려왔다. ‘날을 참 잘 잡았다’라는 소리도 들렸다.

‘진행자를 위한 배려인가?’ 가우똥



김윤하
(시카고 동창회 회장 · 공대 66)

시카고 동창회에는 미식가협회, 독서 클럽, 댄스동호회 등 크고 작은 동아리 모임이 적지 않다. 코로나 사태가 오기 전까지는 모임이 활발하게 이뤄져 동문들에게 큰 즐거움을 줬다. 그러나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이 모임들이 일시 중단된 상태다.

이런 분위기에서도 황찬주 동문(인문대 84)이 스와재 동호회를 만들어 지난 6월 야유회 때 첫 선을 보였다. ‘스와재’는 ‘스’패니시와 ‘재’테크를 공부하는 모임의 줄임말이다.

황 동문은 야유회의 MC를 맡아 회원들과 함께 스페니시로 싱얼롱을 진행하

는 등 재치있는 솜씨로 참석한 모든 동문들에게 스트레스를 맘껏 풀 수 있게 해줬다. 뿐만 아니라 댄스동호회도 이끌어 동창회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신 분이다.

스와재는 황 동문의 리더십으로 어려운 상황인데도 활발한 모임을 갖고 있다. 스와재가 11월 28일 총회 겸 송년회에서 엔터테인먼트를 자청, 연습 중이라는 소식을 듣고는 동창회 예산에서 지원을 해주겠다고 제의했다.

황 동문으로부터 ‘고맙게 받겠다’는 회신을 기대했는데 결과는 정반대였다.

황 동문이 보내온 이메일을 읽고 또 읽었다.

코로나-19으로 인해 얼어붙은 우리의 마음을 훈훈하게 해주기 충분했다.

너무나 감동을 해 황 동문의 글을 혼자

읽기에는 참으로 아까워 동문들과 공유하고자 한다.

“존경하는 김윤하 회장님.

저희 스와재 활동을 칭찬해주시고 지원금까지 제의하신 회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스와재 회원들에게 회장님의 말씀을 전하고 의견을 들은 결과 회장님 및 임원님들의 마음만 받고 지원금은 정중히 사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코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첫째 저희 스와재는 특별한 비용이 들지 않고, 둘째 모든 회원들이 동문 및 가족으로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셋째 모두가 동창회의 행사나 일정 등에 즐기는 마음으로 적극 참여하기 때문에 동창회의 지원이 혹여 수한 저희들의 마음에 작은 자만심이나

의무감같은 것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몇 번 안 되는 동문 행사에서 현재 배우고 있는 스페인어와 독서클럽에서 얻는 작은 성과들이 있다면 선후배님들과 함께 나누는 것으로 저희는 만족합니다.

동창회에 저희들이 협조할 일이 있으면 힘껏 돕겠습니다. 언제나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스와재 동호회 회원 일동.”

스와재의 이같은 이메일을 이사들과 임원들에게도 프린트해 읽어보도록 권유했다.

많은 분들이 스와재 동호회원들의 ‘진심’에 가슴이 뭉클했다고 전해주었다.

서울대는 지성 뿐만 아니라 인성에서도 역시 최고라는 생각이 들었다. 서울대를 나왔다는 사실에 오늘날만큼 자부심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요즘같은 메마른 사회에서 이 고운 마음씨의 불꽃이 아직도 꺼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고 이 세상이 다시 좋아질 수 있다는 큰 희망에 가슴이 뚫히었다.

‘색칠한 젊음’에서 해방되니...



문병길
(문리대 61)

머리염색을 안 한지 벌써 8년이 가까워 온다. 거의 반평생 가까이 하던 염색을 중단하고 나니 그 동안 늘 헤어지지 못했던 ‘색칠한 젊음’의 짐을 벗은 것 같아 활기찬 느낌이다.

새치가 유난히 많았던 나는 40대 후반부터 머리가 희끗 희끗해져 ‘아직 이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염색약을 찾기 시작했다. 나이 많아 보이는 게 도움이 안 되는 미국 직장의 분위기이기도 했지만 퇴직할 때까지는 늙어 보이지 않겠다는 나름의 고집도 있었다.

그러나 결코 즐거울 수 없는 머리 염색 작업은 늘 시간과 마음의 짐이었다. 때때로 지겨운 염색을 앉겠다고 버티다 하얀 생머리가 밀고 올라오면 예뻐서 이발소를 찾거나 염색약을 타놓고 아내에게 도움을 청하곤 했다.

50대 중반이 되면서 염색의 질곡에서 벗어날 기회가 있기는 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혼자 근무하며 남의 시선을 덜 타던 좋은 기회가 있었던 것이다. 미국에서 찾아온 식구들이 갑자기 하연진 내 머리에 놀란 것만 빼놓고는 그런대로 염색에서 해방되는가 했다.

내 주위에는 선천적으로 나이 들어도 머리가 검은 친구들이 있다. 그러나 나의 머리는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라던 주례사의 ‘파뿌리’가 너무 일찍 시작되고 있었다.

염색을 중단하고 나니 머리는 그야말로 백발로 변해버렸다. 내 나이에 백발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데 염색으로 학습된 마음은 적응이 필요했다.

한국에 나가 지하철 경로석에 앉아도 어울리는 머리이며 나보다 더 늙어 보이는 노인에게는 자리를 양보하는 여유

도 생기는 머리색이다. 젊은이가 앉아 있는 앞에 가 손잡이에 매달려 서는 것은 기필코 피한다.

허연 머리를 하고 서있는 나와 애써 판청 하는 젊은이 사이에는 ‘동극’의 자력이 되어 서로 마음의 배척이 따르는 불편이 따른다.

젊은이가 자리를 내 주더라도, 고맙기는 하지만 늙음을 담보로 누리는 육신의 편함이 오히려 짐이 되기도 한다.

어찌 되었건 나의 머리카락과 뇌는 서로 일센치도 안 되는 거리에 있으면서 서로 코드가 안맞곤 한다.

지기로부터 하얗

게 변해버린 나의 머리가 온화하고 여유 있어 보인다며 위로 아닌 위로를 가끔 듣는다. 듣기 좋은 말이겠지만 그리 듣기 싫은 말도 아니다. 아마도 애써 검은 머리 만들기 열심 내던 내가 염색을 포기한 만큼은 느긋해 졌으니 그만큼의



여유는 생겼는지 모르겠다. 안간힘의 포기는 늘 그만큼의 평온을 가져다 주게 마련인 모양이다.

그런데 지난 해부터 흰머리가 좀 거북할 때도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아마 앞으로 상당부분 마찬가지로 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주 공격 대상이 65세 이상의 시니어임이 밝혀지면서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의 수난기가 시작된 것이다.

시니어들은 몸을 사리게 되면서 활동 반경이 좁아지더니 급기야는 사람 많은 곳에 끼이면 여느 때와는 좀 다른 시선을 받게 되었다. 아니 저 할아버진 집안에 꼭 박혀 계시지 않고 쏘다니긴 왜 쏘다녀? 지금이 어느 때인데!

흰 머리카락과 연륜의 얼굴을 얼마만큼 가려주는 훌륭한 소품이 있다. 모자와 마스크다. 노인들의 모자는 뇌를 냉기로부터 보호해 건강에 좋고, 마스크 착용은 국가의 ‘명’이다. 모자와 마스크로 감싸보았자 노티는 여전하겠지만 ‘집콕’ 않고 돌아다니는 눈총은 덜 받겠지 하는 안간힘의 자위다.

물론 스스로를 가두느라 고역을 치르지만.

모두가 부스터샷 접종을 마쳐 하루가 아쉬운 시니어들에게 잃어버린 세월의 되찾음이 속히 오기를 바랄 뿐이다.

스코필드 박사와 에델바이스의 추억



김수영
(사대 57)

얼마전 동생과 함께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동생의 팔순잔치 겸해서다. 20여년 전 암 수술을 두번이나 받고도 지금껏 살아 팔순을 맞았으니 감회가 남달랐을 수밖에.

동생은 수필집, 나는 스코필드 박사와의 인연을 담은 책을 냈다.

내가 박사님을 처음 뵈는 건 대학 2학년 때다. 외국인교수회관에서 우연히 만났다. 영국에서 교환교수로 오신 분을 뵈러 갔다가 복도에서 박사님과 마주친 것이다. 소아마비를 앓아 오른쪽 다리를 절면서 지팡이를 짚고 계셨다.

영어를 전공하고 있다고 말씀 드리자 통역과 번역 일을 도와달라고 하셨다. 당시 박사님은 수의과 대학에서 병리학과 세균학을 가르치고 계셨다. 박사님을 모시고 통역이 필요한 곳은 마다하지 않고 다녔다. 내게 삼촌이 되어 주시

겠다고 'Gwen' 이란 예쁜 영어이름도 지어주셨다.

박사님은 고아들을 돕고 가난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기 위해 밤 새워가며 세계 각국의 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를 썼다.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편지 쓰는 일은 아주 고역이었다.

박사님은 일제강점기 시절 의료선교사로 조선 땅을 밟았다. 삼일운동 때는 민족대표 34인에 이름을 올렸다. 원래는 33인이나 박사님이 외국인이어서 '33+1'이 된 것이다. 독립유공자들 가운데서도 최고의 반열에 오르신 분이랄 수 있겠다. 박사님은 지금 서울의 국립현충원에 잠들고 계시다.

박사님은 수의학자로 세계적인 명성을 떨쳤던 분이시다. 모국인 캐나다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편안한 여생을 보낼 수 있었는데도 조선을 돕기 위해 우리나라에 오신 분이시다.

내가 이번에 스코필드 박사 전기를 쓰게 된 것은 5년 전 LA에서 스코필드 박사 100주년 특별전시회에서 정운찬 전 총리를 만나고 나서다.

정 전 총리가 내게 스코필드 박사의 영문전기 'I Wish to Be Buried in Korea' 를 건네줬다. 방대한 분량이어서 며칠 꼬박 새워가며 읽었다.

책이 너무 두껍고 영어도 어려워 일반인들이 접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글과 영어로 쉽게 쓰면 2세대들은 물론 미 국민들에게도 널리 읽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번에 '잊을 수 없는 스코필드 박사와 에델바이스의 추억' 이란 이름으로 출판을 하게 된 것이다.

책 이름에 왜 '에델바이스' 가 들어갔는지 연유를 설명해 드리겠다. 한 번은 박사님을 우리집으로 초대해 저녁을 대접해 드렸는데 그때 선물을 갖고 오셨다. 바로 에델바이스 벽걸이다.

꽃 모양 그대로 말려서 액자 안에 넣어 벽걸이로 만든 것이다. "하나 밖에 없는 아주 귀한 것이니 에델바이스를 볼 때마다 나를 기억하고 기도해 달라" 고 하셨다.

내가 가보처럼 아꼈던 에델바이스 벽걸이는 이사를 여러번 하는 동안 그만 분실하고 말았다. 얼마나 애통했는지.

그러나 박사님이 남긴 교훈은 내 가슴 속에 영원히 셋별처럼 빛나고 있다. 나는 지금도 밤을 지새우며 편지를 쓰시던 박사님의 모습을 결코 잊을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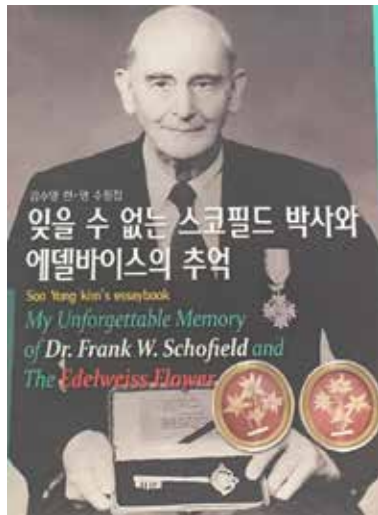
정 전 총리 또한 '스코필드 장학금' 으로 대학을 졸업할 수 있었다. 그 분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잊지못해 '스코필드 추모기념 재단' 을 만들었다.

정 전 총리는 그 산하에 장학재단을 만들어 박사님의 유업을 이어가고 있다.

에델바이스 꽃처럼 순결하고 고귀했던 스코필드 박사님의 삶, 추위와 비바람에도 살아남은 에델바이스 꽃처럼 불의에 굴하지 않고 정의로운 삶을 살다간 강인한 인격의 소유자. 스코필드 박사님이야말로 우리에게 귀감이 되는 훌륭한 인격자요, 신앙인이다.

서울대 동문님들에게 제가 쓴 책을 읽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자녀들에게도, 주위 한인들에게도, 미 국민들에게도 널리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Happyness'의 행복지수

샌프란시스코의 어느 초겨울 아침. 크리스 가드너는 어린 아들의 손목을 꼬옥 잡고는 종종 걸음을 걷는다. 그가 향한 곳은 차이나타운. 값싼 데이케어센터에 아이를 맡기기 위해서다. 문득 그의 시선이 어린이집 바깥벽에 멈춘다. 철자가 틀린 단어가 그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 것이다.

청소를 하고 있던 중국인에게 'Happyness'가 아니라 'Happiness'라고 알려준다. y를 i로 고쳐써야 한다고 몇 번이나 말해보지만 중국인은 알아듣지 못할 말만 되풀이 할 뿐이다. "세상에 '행복'이란 글자를 틀리게 쓰다니..."

지난 2006년 말 개봉된 영화 '행복의 추구(The Pursuit of Happyness)'는 이처럼 'y'에 방점이 찍혀 있다. 행복은 부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배움이 적고 삶이 고단한 뒷골목 인생들도 추구할 수 있다는 점을 일깨워주기 위해 제목을 일부러 틀리게 쓴 게 아닌

가 싶다. 홈리스에서 월스트리트의 억만장자가 되기까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가드너의 실제 이야기를 스크린에 담았다. 가드너 역을 맡은 윌 스미스가 이듬해 아카데미 남우주연상후보에 오를 만큼 감동의 휴먼 드라마다.

영화는 토머스 제퍼슨이 기초한 독립선언문 전문이 화면을 가득 채우며 시작된다.

"생명 과 자유 그리고 '행복의 추구'는 창조주가 인간에 부여한 빼앗을 수 없는 권리다."

가드너는 의료기기판매로 대박을 꿈꾼다. 얼마 안 되는 전재산을 투자해보지만 잔뜩 들여놓은 기계는 애물단지일 뿐이다.

그러자 주식중개인이 되겠다고 돈 한 푼 못받는 인턴을 지원한다. 참다못해 결별을 통보하는 아내.

집세가 밀린 그는 결국 노숙자 신세가 된다. 교회가 운영하는 홈리스 쉼터에서 아들을 재워놓고는 책을 읽었다.

하루를 버티기도 힘들었으나 결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아들과 함께 살아갈 행복을 위해.

인턴 마지막 날 회사 사장이 그를 불렀다. "크리스 내일도 정상 출근하게." 정규직 사원이 된 그의 눈에 물기가 스쳤다. 아들을 품에 안으며 한참이나 뺨을 비벼댔다. "야야 누구도 너한테 '넌 해낼 수 없어'라는 말을 못하게 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다.

이후 가드너는 미국 굴지의 증권회사 '베어 스텐스'를 거쳐 자신의 이름을 딴 투자회사를 설립, 수억 달러의 자산가로 자수성가했다.

얼마 전 유엔이 발표한 '세계행복보고서'에서 최강국 미국이 17위에 랭크

돼 눈길을 끈다. 상위권은 소득의 절반 가량을 세금으로 낸다는 북유럽 국가들이 휩쓸다시피 했다.

정부가 돈을 그렇게 거둬가는데도 행복하다니 믿기지 않는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가 철저히 때문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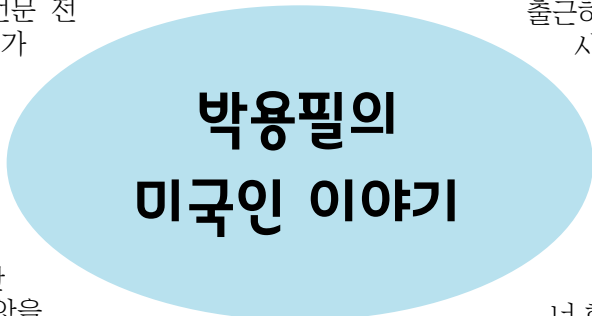
이번 조사에서 가장 흥미있는 나라는 멕시코. 16위에 올라 미국보다 한 계단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체자를 양산하는 나라. 때로는 '멕짱'이라 불리며 괘시를 받는 사람들이 정작 우리 보다 훨씬 삶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이다. 선진국의 문턱에 들어섰다는 한국은 41위로 멕시코에 한참 뒤쳐진다.

가드너는 훗날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다. "돈이나 명성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닙니다."

난 지금 건강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특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 아이를 지켜냈다는 데 대해 행복감을 느낍니다."

달력을 보니 올해도 달랑 한 장 남았다. 나는 얼마나 행복할까. 'Happyness'일까 아니면 "Happiness"일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자”

명상은 ‘본 어게인’, 세상이 아름답게 보여



김영철 (상대 44)

나는 올해 95세 생일을 맞았다. 이 나이가 되다 보니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하는 생각에 명상을 하기 시작했다.

명상이 무엇인지 내 나름대로 정의를 내려 본다. 물질적 욕망을 다 털어버리고 또 세상 일에 신경쓸 것 없이 오로지 내 마음을 깨끗이 비우고 초연하게 사는 것이 명상이라고 해도 지나친 표현은 아닐 것 같다.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을 보면 거의 모두 하나 같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욕심이 가득하고 나아가서 세상 돌아가는 일에 이러쿵 저러쿵 비판하며 신경 쓰는 것을 볼 수 있다.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봐도 신앙심은 어딘가에 밀어넣고 그저 욕망을 채우기 위해 신에게 매달리는 것이 대부분이다.

종교의 참뜻은 무엇인가. 세상적인 고뇌에서 벗어나 깨끗하고 순결한 마음을 갖는 사람으로 새로 태어나는, 이른바 ‘본 어게인(born again)’이 아닐까 싶다.

예수도 이 세상에 나타나기 전 광야에서 40일동안 고난을 겪으며 사탄의 물질적 유혹을 물리쳤다고 하지 않는가.

예수는 내가 하느님 안에 있고 하느님이 내 안에 있으니 하느님과 나는 하나라는 새 모습을 보여줬다. 석가모니도

세상적인 고민때문에 인도의 왕자 자리를 물리치고 산 속으로 들어가 6년 동안 고행을 했다.

그래도 고민이 풀리지 않자 다시 보리수 나무 밑에서 식음을 전폐하고 명상

것을 알게 돼 2년 전부터 명상을 시작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매일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어가기 전 저녁 8시쯤부터 약 1시간 정도 깊은 명상에 들어간다. 방바닥에

머리 속은 그야말로 완전히 무의 상태가 돼 아무런 생각도 감각도 없다. 이 상태에서 마음을 비우고 정화하면 의식이 평소와는 달리 높은 차원으로 바뀌게 된다. 감히 말하건대 이것이 바로 명상의 참된 모습이다.

물론 나의 명상이 고작 2년밖에 안돼 초능력 같은 것이 있을리 없다. 나 자신도 바라지 않는다. 그저 오로지 한결같이 마음을 비우고 깨끗한 마음으로 예수를 닮아가는 길로 한걸음 한걸음 걸어가고 있을 뿐이다.

그 덕분에 물질적인 욕망은 다 사라지고 나아가서 세상 돌아가는 일에 대해서도 아무런 관심도 없어져 남을 탓하거나 비난하거나 업신여기거나 하는 마음이 다 없어진다. 마치 공자가 하루 3번 씩 자기 자신이 옳은가를 되돌아 본 것 같이 나 자신이 올바르게 살고 있는지를 반성하며 살고 있다.

동문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이 있다. 명상을 함으로써 생겨난 것은 감사하다는 마음이라는 사실이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비록 아주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생각지도 않았던 좋은 일이 일어나는 수가 있어 그 순간 참으로 감사하다는 마음이 솟아오른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그 사람에게 주어진 운명도 좋은 쪽으로 바뀐다고 했다. 물론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억지로 감사를 꾸며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때 그때마다 마음 속으로부터 진실되게 깨끗한 마음으로 고마움이 우러나와야 하는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이토록 명상을 계속하면서 나 스스로 마음을 비우고 욕심을 털어버리고 나니 모든 것을 초연한 마음으로 보게 돼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고 하루 하루가 그토록 고맙고 식구들과 친지들 모두에게 그저 감사할 따름이다. 명상에 관한 책에 ‘계속은 힘이다’ 라는 말이 있다.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루하루를 명상으로 이어가고자 한다.

잠자리 들기 전 한시간 머리속 비워 세상적인 욕망 사라지는 것을 느껴



으로 나날을 보내고 나서야 비로소 세상적인 번뇌를 해탈하고 깨달음을 얻어 새 사람이 됐다고 한다.

어쩌면 이처럼 세상적인 욕망과 번뇌를 털어버리고 새로 지음 받는 것이 종교의 참뜻이요 인간이 취해야 할 참 모습이라고 하겠다.

나는 새로 지음받는 것이 바로 내가 인생의 마지막에 나아갈 참된 길이라는

앞아 두 다리를 모으고 두 팔을 가볍게 다리 위에 올려놓은 다음 마음을 완전히 릴랙스 시키고 복식호흡으로 길게 숨을 쉬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몇 분 안돼 두 다리와 두 팔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고 몸 전체가 어디에 있는지 아무런 느낌이 없으며 머리 속에는 세상적인 일들이 다 사라져 버린다.

바라고 원하던 욕망도 완전히 지워져

원고 모집합니다

- 주제 독자들의 생각과 식견을 넓혀주는 각 분야의 다양한 글 (사회, 경제, 문화, 예술, 문학, 철학, 역사, 과학, 의학, 생명과 환경, 여행, 취미 등)
- 글의 양 500 단어 (글자 수 2,000자) 내의 글, 레터용지 한장 반 이내
- 사진 고화질로 찍은 필자의 프로필 사진
- 보내실 곳 원고와 사진은 snuausa30@gmail.com 로 보내주세요.



www.snuaa.org

서울대 미주동창회 CENTURY FOUNDATION

미주동창회 재정자립 3백만불 모금 캠페인

후원해 주신 동문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변함없는 사랑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영원히 새겨질 나의 이름”
서울대 미주동창회 종신이사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는 미국 내에서 최초의 면세 혜택을 승인받은, 26개 지부 및 미주지역 2만여 동문을 대표하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제 15대//제 16대 인수인계가 완료되는대로
정확한 금액을 발표하겠습니다.

종신이사 (\$3,000 이상)

다이아몬드이사
워싱턴주 - 故고광선(공대57)

플라티늄이사
조지아 - 주중광(약대60)
조지아 - 허지영(문리66)

골드이사
남가주 - 김일영(의대65)
남가주 - 박창규(약대59)
남가주 - 성낙호(치대63)
남가주 - 한홍택(공대60)
네바다 - 정상진(상대 55)
뉴잉글랜드 - 박영철(농대64)
뉴잉글랜드 - 윤상래(수의62)
뉴잉글랜드 - 정선주(간호68)
뉴잉글랜드 - 최홍균(공대69)
북가주 - 김정희(음대56)
시카고 - 이용락(공대48)
커네티컷 - 오인석(법대58)
워싱턴주 - 양남주(명예이사)

실버이사
남가주 - 김경숙(사대64)
남가주 - 김태형(의대57)
남가주 - 이홍표(의대58)
남가주 - 정재훈(공대64)
남가주 - 한귀희(미대68)
루지애나 - 강영빈(문리58)
워싱턴주 - 김재훈(공대72)

종신이사 남가주
故서영석(의대55)
故오재인(치대33)
故윤낙승(의60)
강신용(사대73)
곽웅길(문리59)
권기홍(의대60)
김경숙(간호68)
김기형(상대75)
김동훈(의대71)
김보연(간호63)
김상찬(문리65)
김성호(법대64)
김재영(농대62)
노명호(공대61)
노재성(법대58)
류재풍(법대60)
박명근(상대63)
박원준(공대53)
박윤수(문리48)
박중수(수의58)
방명진(공대73)
서동영(사대60)
서치원(공대69)
심상은(상대54)
심화섭(약대61)
오홍조(치대56)
이병준(상대55)
이세열(사대57)

이승훈(상대74)
이종도(공대66)
이청광(상대61)
임낙균(약대64)
임용오(의대57)
전희택(의대58)
정동구(공대57)
정임현(간호72)
정철룡(의대55)
정태(의대57)
제영혜(가정71)
조용원(문리66)
조임현(간호72)
조한원(의대57)
차민영(의대76)
차종환(사대54)
하기환(공대66)
한효동(공대58)
홍병각(문리55)
홍성선(약대72)

뉴욕
강충무(사대61)
고애자(음대57)
故한창섭(문리57)
김광호(문리62)
김승호(공대71)
김종률(사대51)
김한중(의대56)
김해암(의대52)

석창호(의대66)
신용남(농대70)
윤종숙(약대66)
이기영(농대70)
이대영(문리64)
이재덕(법대60)
이재량(상대61)
이전구(농대60)
이준행(공대47)
최수용(상대55)
최영태(문리67)
추재욱(의대57)
한태진(의대58)
허선행(의대58)

뉴잉글랜드
고일석(보건69)
고종성(사대75)
김문소(수의61)
김용구(공대66)
박경민(의대53)
오세경(약대61)
윤선홍(치대64)
이의인(공대68)
전신의(문리57)
정정욱(의대60)
정태영(문리71)
홍지복(간호70)

미시간
정태(의대 57)

미네소타
김권식(공대61)
김태환(의대58)
남세현(공대67)
변우진(인문81)
조형준(문리62)
황효숙(사대65)

북가주
민병곤(공대65)
손석보(공대68)
윤정욱(약대50)
전혜경(문리67)

샌디에고
임천빈(문리61)

시카고
남상용(공대52)
심상구(상대63)
이재희(치대67)
장윤일(공대60)
최의필(의대53)
한재은(의대59)

아이오와
김시근(공대72)

오레곤
김상순(상대 67)

오하이오
김용현(경원66)

워싱턴DC
공순옥(간호66)
박평일(농대69)
이윤주(상대 63)
최지원(의대61)
강연식(사대57)
권기현(사대53)
민흥기(문리61)
방은호(약대43)
이내원(사대58)
오인환(문리63)

워싱턴주
이명자(간호74)
이희백(의대55)

조지아
김용건(문리48)

플로리다
김중권(의대63)

텍사스
박태우(공대64)
이광연(공대60)
조시호(문리59)

필라델피아
고병은(문리55)
김영우(공대55)
김현영(수의58)
서종민(공대64)
손재욱(가정77)
신성식(공대56)
신의석(공대53)
이만택(의대52)
주기목(수의68)

하틀랜드
김경숙(가정70)
김명자(문리62)
김시근(공대72)
배규영(사대68)
오명순(가정69)
이교락(의대53)
이상강(의대70)

[종신이사 구분]
(D) 다이아몬드 이사 \$100,000 이상
(P) 플래티넘 이사 \$50,000 이상
(G) 골드 이사 \$10,000 이상
(S) 실버 이사 \$5,000 이상



일반후원금, 광고후원금

일반후원금

남가주	
강신용(사73)	200
권기상(대72)	100
김동석(음64)	200
김영(수63)	500
김영봉(사60)	200
김영희(간54)	50
김은숙(미62)	1000
김은종(상59)	400
김중섭(문66)	50000
노명호(공61)	1000
박원준(공53)	200
박은숙(미62)	200
박중수(수58)	12000
박찬호(공58)	300
박혜란(음72)	300
방석훈(농55)	300
성주경(상68)	200
송영두(공59)	200
신영찬(의63)	200
오찬수(약57)	200
오홍조(치56)	500
이명선(상58)	500
이범식(공61)	375
이장길(치63)	50
이창신(법57)	500
장동석(문66)	200
정균희(의65)	10000
정신(대92)	1000
정재훈(공64)	260
최용완(공57)	100
최종권(문59)	220
한귀희(미68)	2000
한홍택(공60)	200

뉴욕	
강창홍(의63)	50
권영국(상60)	200
김명철(공60)	200
김중권(의63)	200
리준무(음65)	200
선종철(의57)	100
이강홍(상60)	200
이전구(농60)	500
조남천(사59)	350
한승순(간70)	150
허선행(의58)	200
미시간	
우동환(의65)	200
시카고	
김현주(문61)	100
소진문(치58)	200
이성길(의65)	100
이용락(공48)	1000
최희수(문67)	100
오레곤	
김상순(상67)	200
워싱턴DC	
강길중(약69)	200
고무환(법57)	200
권철수(의68)	200
김동훈(법56)	200
박홍우(문61)	200
석균범(문61)	200
이건형(수54)	25
정평희(공71)	200
캐나다	
장희순(의73)	388
커네티컷	
김기훈(상56)	200
최창송(의52)	200

텍사스	
이석호(농78)	200
진기주(상60)	500
황명규(공61)	200
플로리다	
임필순(의54)	200
필라델피아	
이만택(의52)	200
이승공(의63)	200
정태광(공74)	100
하트랜드	
차봉희(의51)	500
광고후원금	
남가주	
강호석(상81)	240
고석자(인72)	600
김양희(음77)	1200
김원택(공65)	240
김은중(상59)	600
김자성(의79)	1500
김정빈(공66)	500
나두섭(의66)	200
미주재단(0)	2000
민일기(약69)	500
박수경(생84)	900
박제환(문75)	600
서동영(사60)	240
서치원(공69)	1000
안혜정(생83)	200
이기준(법54)	500
이원택(의65)	1200
이종묘(간69)	240
임춘택(상68)	400
정재훈(공64)	240
제11대동창회	1000
차민영(의76)	1500
최용준(수81)	400
한효동(공58)	300
홍훈정(음70)	400

뉴욕	
김승호(공71)	1500
이전구(농60)	240
장학기금	
남가주	
박원준(공53)	300
시카고	
이용락(공48)	300
모교발전기금	
남가주	
박원준(공53)	700
이범모(치74)	200
홍선일(공71)	100
워싱턴DC	
권철수(의68)	100
워싱턴주	
이원섭(농77)	150
Brain Network	
시카고	
이용락(공48)	200
평의원회비	
남가주	
권기상(대72)	80
김건진(문62)	100
김기형(상75)	100
김동석(음64)	100
김병연(공68)	100
김병완(공58)	100
김상찬(문65)	100
김영(수63)	100
김은종(상59)	100

김익수(수53)	100
김재영(농62)	100
김지영(사69)	100
남중우(공62)	100
노명호(공61)	100
라철삼(문64)	100
류재풍(법60)	100
민일기(약69)	100
박상길(농58)	100
박제환(문75)	100
박중수(수58)	100
박혜옥(간69)	100
방석훈(농55)	100
서치원(공69)	100
성주경(상68)	100
손영아(음85)	90
신건호(법53)	100
신영찬(의62)	100
신호신(약00)	100
오홍조(치56)	100
이기준(법54)	100
이병준(상55)	100
이종도(공66)	100
이청광(상61)	100
임춘택(상68)	100
정동구(공57)	100
정상진(상59)	100
정재훈(공64)	100
제영혜(생71)	100
지인수(상59)	100
지종근(농56)	100
차중환(사54)	100
최용준(수81)	100
최진석(법64)	100
한귀희(미68)	100
한종철(치62)	100
한홍택(공60)	100
한효동(공58)	100
뉴욕	
김용진(수92)	100
김창수(의60)	100
신용남(농71)	100

뉴잉글랜드	
윤상래(수62)	100
미네소타	
김권식(공61)	100
송세진(치78)	100
북가주	
강정수(문61)	100
민병곤(공65)	100
임승래(문66)	100
최경선(농68)	100
홍경삼(문61)	100
샌디에고	
김병목(의50)	100
임천빈(문61)	100
오하이오	
김용환(경66)	100
박상근(법75)	100
박평일(농69)	100
오인환(문63)	100
정평희(공71)	100
텍사스	
이주희(음89)	100
필라델피아	
손재욱(생77)	100
이성숙(생74)	100
조화연(음64)	100
지흥민(수61)	100
하트랜드	
김경숙(간68)	100
이상강(의70)	100
지부부담금	
워싱턴DC	2000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회비 및 후원금

동창회 후원금	동창 회비	업소록 광고비	특별 후원금
<input type="checkbox"/> \$200 <input type="checkbox"/> \$500 <input type="checkbox"/> \$1,000 <input type="checkbox"/> \$ _____	<input type="checkbox"/> \$75(2021. 7 ~ 2022. 6) <input type="checkbox"/> \$150(2021. 7 ~ 2023. 6) <input type="checkbox"/> \$3,000(중신이사회비)	<input type="checkbox"/> \$240(2021. 7 ~ 2022. 6) <input type="checkbox"/> \$480(2021. 7 ~ 2022. 6) 일반 광고 문의: snuaausa30@gmail.com	<input type="checkbox"/> Scholarship Fund (장학기금) \$ _____ <input type="checkbox"/> Charity Fund (나눔) \$ _____ <input type="checkbox"/> Brain Network 후원금 \$ _____ <input type="checkbox"/> 모교발전기금 \$ _____

후원금 용도: 장학금은 뛰어난 동문들의 학업을 돕는데 사용됩니다. Charity Fund는 동창회 자선 사업을 위해 쓰입니다. 모교발전기금은 모교와 미주 동창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쓰입니다.

Brain Network 후원금은 석학 초빙 강연회 등 동문들간의 네트워킹 증진을 위해 쓰입니다. 중신 이사회비는 SNUAA-USA Century Foundation 에 적립됩니다.

동창회 후원금과 동창 회비는 회보 발간 및 미주동창회 행사와 제반 운영을 위해 사용됩니다. 동문님의 후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Total: \$ _____ Payable to SNUAA USA

보낼 곳: SNUAA-USA, 2410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2005 | Tel: (213)908-5586 | Email: snuaausa30@gmail.com

(보내주시는 회비 및 후원금 합계가 \$250 이상 되시는 동문께서는 영수증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한글이름:	영문이름:	단체대:	입학연도:	지부:
E-mail:	Cell Phone: _____			
주소: _____				

*주소가 바뀔경우에만 기입 바랍니다.

남가주지역

마켓
Han Nam Chain Market
 하기환(공대66)
213-381-3610
 2740 W. Olympic Blvd., LA, CA 90006

변호사
한태호 변호사 법률 그룹
 한태호(인문대 75) www.haanlaw.com
213-639-2900
 3699 Wilshire Blvd., #860, LA, CA 90010

신혜원 변호사
 신혜원(사대 81)
213-385-3773
 3435 Wilshire Blvd., #2230, LA, CA 90010

Law Office Of Kyung Hee Lee
 이경희(인문대 83) imin@irminusa.net
213-385-4646
 3435 Wilshire Blvd., #1110, LA, CA 90010

부동산
Team Sprit Realty
 이종묘(간호대 69) jennielee@gmail.com
714-396-0624
 6301 Beach Blvd., #225, Buena Park, CA 90621

식품/음식점
자연나라
 이승훈(상대 74)
562-633-7400
 7212 Alondra Blvd., Paramount, CA 90723

해태 USA
 정정우(수의대 74)
323-890-0101
 7227 Telegraph Rd., Montevello, CA 90640

복합동 순두부
 이태로(법대 50)
213-382-6660
 3575 Wilshire Blvd., LA, CA 90010

병원
실로암병원
 정균희(의대 64)
213-386-8602
 2528 W. Olympic Blvd., #103, LA, CA 90006

동물병원
Van Buren Animal Hospital
 오영문(수의대64)
951-687-2630
 5535 Van Buren Blvd., Riverside, CA 92503

Animal Medical Clinic
 신동국(수의 76)
714-990-1411
 3257 Associated Rd., Fullerton, CA 92835

San Bernardo Foot Clinic Inc.
 이상대(농대 80)
909-882-3800
 2095 N. Waterman Ave., San Bernadino, CA 92404

Gilbert Drugs
 최무식(약대 66)
714-638-8230
 9240 Garden Grove Blvd., #20, Garden Grove, CA 92844

공인회계사
Kyung Moo Kim
 김경무(공대 69) kyungmookim@yahoo.com
(213) 616-1390
 114 Washing Blvd., #C, Marina Del Ray, CA 90292

SHIN-YONG KANG CPA
 강신용(사대 73) 공인회계사
(213) 380-3801
 3850 Wilshire Blvd., #201, LA, CA 90010

Lee Kang Won CPA
 이강원(인문대 76)
(213)387-1234
 3600 Wilshire Blvd., #930, LA, CA 90010

GSK LLP
 강호석(상대 81) cpa@hosukgangcpa.com
(213)380-5060 (LA, CA)
(714)530-3630 (Garden Grove, CA)

JUN CHANG
 장 준(인문대 85)
(818)772-2811
 11145 Tampa Ave., Suite 26A Northridge, CA 91326

임춘택 공인회계사
 임춘택(상대 68) choontaikim@gmail.com
(213)380-4646
 3700 Wilshire Blvd., #750, LA, CA 90010

김원철 CPA
 김원철(농대) kimandhwang@cs.com
213-383-8553
 3435 Wilshire Blvd. #940, LA, CA 90010

기계 · 기술 · 전자
Link TV Media www.linkboxusa.com
 김원탁(공대 65) linkboxusa@gmail.com
818-720-2373
 24208 Park Athena, Calabasas, CA 90302

Turbo Air, Inc.
 서치원(공대 69)
(310)719-5422
 3421 Oakridge Terrace, Calabasas, CA 91302

Tayco Engineering, Inc.
 정재훈(공대 64) jchung@taycoeng.com
(714) 952-2240
 10874 Hope St. PO Box 6034, Cyoress, CA 90630

자동차 · 서비스
A.P.W. 자동차부품
 서동영(사대 60)
(310)753-9636
 1073 E. Artesia Blvd., Carson, CA 90746

기타
ACCU Construction, Inc.
 염동해(농대 74)
818-720-2373
 2098 S. Grand Ave., Suite A, Santa Ana, CA 92705

뉴욕지역
공인회계사
KI CPA & Associates Llc
 이경림(상대 64)
 1430 Broadway St., 306, New York, NY 10018

리테일
New York Golf Center
 이전기(농대 60) www.nycgolfcenter.com
212-564-2255
 131 W 35Th St., New York, NY 10001

변호사
신응남 변호사
 신응남(농대 70) petershinesq@gmail.com
718-463-3131
 158-14 Northern Blvd. 2FI #UI-2 Flushing, NY 11358

금융
Edward Jones Investments-
 윤의규(상대 82) edwarded.yun@edwardjones.com
201-978-7055
 560 Sullivan Ave St 3270 Englewood Cliffs NJ 07632

병원
백승원 위장내과
 백승원(의대 73)
201-302-9774
 1608 Lemoine Ave., #200 Fort Lee, NJ 07024

석창호 위장내과
 석창호(의대 66) changshuk@aol.com
718-461-6212
 41-61 Kissena Blvd., #27 Flushing, NY 11355

이창석 내과
 이창석(의대 72) clee134597@aol.com
718-762-4400
 40-5 Browne St., Flushing, NY 11354

김해암 정신의학 전문의
 김해암(의대 53) haeahm@aol.com
212-879-2322
 230 East 73Rd Street St., 1A, New York, NY 10021

박범열 소아과
 박범열(의대 75)
718-229-1188
 211-50 45th Dr., Bayside, NY 11361

박종호 소아과
 박종호(의대 79)
201-242-1002
 44 Sylvan Ave., Englewood Cliffs, NJ 07632

윤세용 비뇨기과
 윤세용 richardymoonmd@yahoo.com
718-335-3333
 75-21 Broadway, Flushing, NY 11373

김치갑 통증병원
 김치갑(의대 73)
201-541-1111
 475 Grand Ave., Englewood, NJ 07631

Lic Hotel / 뉴욕스파 앤 사우나
 김승호(공대 71)
718-463-0001
 44-04 21St St., Queens, NY 11101

전미주 서울대 동문의 후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동창회를 이끌어가는 힘은 동문들의 격려와 후원입니다.
협회의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 주십시오.



제16대 노명호 회장&임원 일동/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
 2410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2005
 Tel: 213-908-5586 Email: snuaausa30@gmail.com

UKC 2021
Los Angeles
Dec. 15-18, 2021

Pursuing Global Health and Sustainability

KSEA 50th Year Special Celebration

Dates: Dec. 15-18, 2021
Hyatt Regency Orange County
11999 Harbor Blvd, Garden Grove, CA 92840

UKC Registration and Info:
<https://ukc.ksea.org/ukc2021/>
Join KSEA at: KSEA.org

UKC Plenary Speakers

[2020 Nobel Laureate] Dr. Andrea Ghez
Distinguished Professor of Physics & Astronomy, UCLA

Dr. Eric P. Goosby, MD
Professor of Medicine UCSF & Biden Administration's COVID-19 Advisory Panel Member

Dr. Jong Sung Koh
President and CEO, GENOSCO Inc.

Conference Highlights

- Twelve Different Technical Sessions
- Fostering Innovation with Rising Experts (FIRE) Symposium
- Innovation & Entrepreneurship Symposium & Start Up Pitch Competition
- Panel Session on Sustainable Research and Funding
- Science Policy Forum and Science Diplomacy Forum
- Data Science Workshop
- And More

VIP Dinner (Dec. 15, 2021)
Meet Top Policy Makers and Scientists from US and Korea
By Invitation Only

Gala Dinner (Dec 16, 2021)
Special Appearance of STEELHEART
Singer and Song Writer of She's Gone
Miljenko Matijevic

Organizers:

김자성 정신과

진료 분야

소아부터 노년 정신의학

약물치료 및 정신치료

부부 상담

타주에서도 원격진료 가능

노명호 회장 취임을 축하합니다

김 자 성(의대 79)

TEL 213.797.5953

505 SHATTO PL. #204, LOS ANGELES, CA 90020

제16대 미주동창회

회장 노명호(공)

▷고문: 김종섭(문), 박종수(수), 주중광(약)

차기회장 이상강(의)

브레인 네트워크/포럼 위원회

위원장: 한홍택(공)
위원: 김정빈(공), 김재훈(공), 김유경(음), 차재호(농), 정호(공), 이관우(공)

명예회장 신용남(농)

역대회장

박윤수(문), 강수상(의), 이병준(상), 오인석(법), 이용락(공), 오홍조(치), 이영목(공), 이진구(농), 송순영(문), 김은종(상), 오인환(문), 손재욱(가), 윤상래(수) 신용남(농)

후원위원장 서치원(공)

위원: 차민영(의), 강성진(문)

집행부

▷사무총장: 강호석(상)
▷사무장: 홍선례(음)
▷총무국장: 이호진(간)
▷재무국장: 이윤중(미)
▷IT 국장: 심재호(공)
▷섭외국장: 안혜정(가)
▷문화국장: 홍선례(음)
▷홍보국장: 김자성(의)

회보 발행인 노명호(공)

▷편집 고문: 박용필(문), 김정현(공)
▷편집위원: 김양희(음), 박승현(음), 한정희(미), 허유선(가)

논설위원

▷정태영(문), 문성길(의), 박평일(농), 정홍택(상), 김지영(사), 박제환(문), 강신용(사), 이종호(인), 김학천(치)

회칙위원회

위원장: 김병연(공)
위원: 김용현(상), 김지영(사), 성주경(상), 이민언(법), 조화연(음), 최경선(농), 최진석(법), 한재은(의)

장학위원회

위원장: 노명호(공)

포상위원회

위원장: 노명호(공)
위원: 각 지부 회장

감사: 김경무(공)

서울대 미주동창회보 SNU Alumni Association USA

전화 (213)908-5586 이메일 news@snuua.org 웹사이트 www.snuua.org

주소 2410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2005

미주동창회 회보 편집 규정 본 회보에 게재된 모든 기고문은 회보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투고된 글의 게재 여부는 편집회의 등을 통하여 결정됩니다.



미주 지역동창회 회장단



남가주 S.CA/NV (회계연도 Feb~Jan)

회장 최용준(수의대 81) T: (818)450-7868 yongjunechoi6080@yahoo.com

차기 회장 박제환(문리 75) T: (323)229-3369 jaycpa2000@gmail.com

북가주 SANFRANCISCO (Jan~Dec)

임준원(공대 77) T: (408)220-4260 joonwlim@gmail.com

샌디에이고 SAN DIEGO (Nov~Oct)

유재호(공대 90) T: (469)387-7922 blue9071@gmail.com

워싱턴주 WASHINGTON (Jan~Dec)

이명자(간호 74) drmiale@gmail.com

오하이오 OHIO (Jan~Dec)

이성우(상대 72) T: (614)370-5761 rimshake@ameritech.net

하와이 HAWAII (Jul~Jun)

성낙길(문리 77) T: (808)956-2611 nsung@hawaii.edu

북텍사스 LA/DALLAS (Jan~Dec)

강성호(수의 81) T: (214)215-4447 oah9999@yahoo.com

중부텍사스 MID-TEXAS

이학호(수의대 59) T: (512)487-4390 Hakho3830@gmail.com

캐나다 밴쿠버 (Jan~Dec)

장희순(문리 75) T: (778)990-6589 sphro17@gmail.com

오레곤 OR/ID (Jan~Dec)

전병택(상대 65) bryancho@gmail.com

캐나다 앨버타 (Mar~Feb)

정중기(공대 70) T: (403)617-7585

알래스카 ALASKA (Jan~Dec)

윤재중(농대 55) T: (907)223-0887 jaejoon@hotmail.com

록키마운틴스 MT/CO/WY/NM (Jan~Dec)

최용문(공대 77) ymcgreencorp@gmail.com

시카고 IL/IN/WI/MI (Jan~Dec)

김윤하(공대 66) snuaachicago@gmail.com www.snuachicago.org

미네소타 MINNESOTA (Jan~Dec)

회장 차재호(농공학 84) T: (651)769-5343 jaehocha@yahoo.com

차기 회장 용정식(농화학 86) T: (610)952-3673 jyong@umn.edu

뉴잉글랜드 MA/RI/NH/ME/VT (Jul~Jun)

회장 김유경(음대 72) T: (781)223-4411 YkimLC@yahoo.com

차기 회장 임영호(공대 72) 978-490-0118 Ynghlim@yahoo.com

뉴욕 NY/NJ (July~Jun)

회장 김영천(약대 72) yckum52@gmail.com

차기 회장 김정필(공대 71) jaypkim@keiusa.com

워싱턴 DC DC/MD/VA/WV (Jan~Dec)

회장 박상근(법대 75) T: (703)447-8175 sangkuenpark@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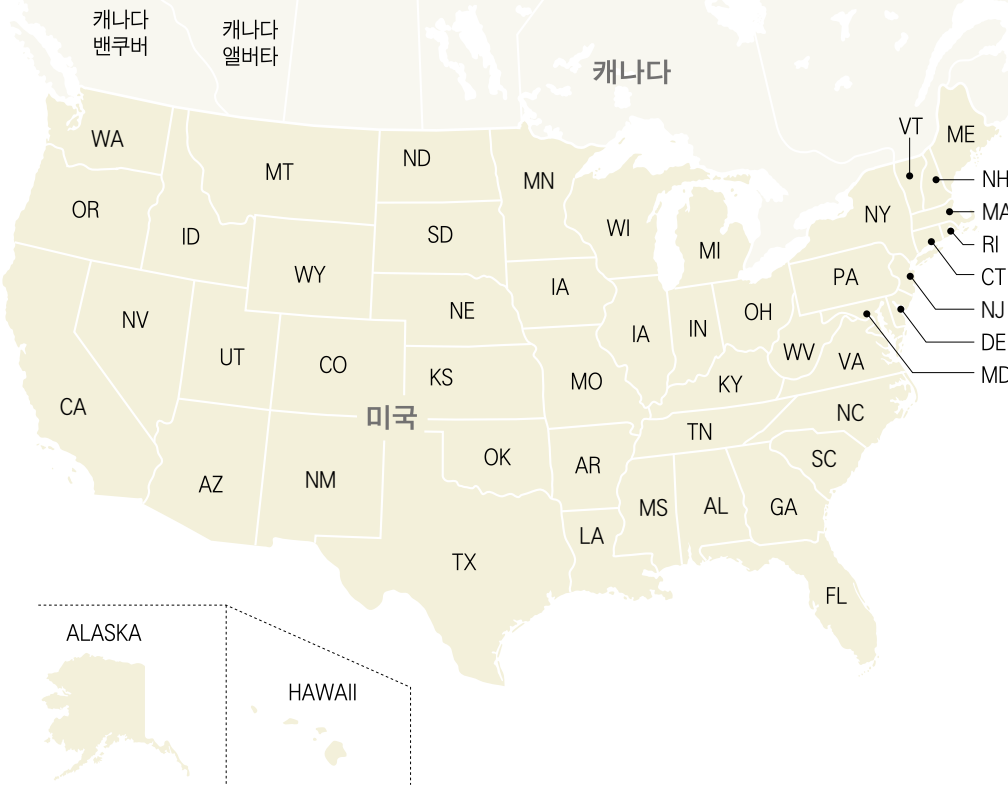
차기 회장 정세근(자연대 82) T: (703)785-8467 saekewn@gmail.com

커네티컷 CT

박용희(상대 83) T: (203)767-8187 yhptax@gmail.com

필라델피아 PA/DE/S.NJ (Jul~Jun)

이성숙(가정 74) T: (610)417-4789 ssh1120@gmail.com



애리조나 ARIZONA

오윤환(공대 56) T: (520)271-2601 youn.oh@gmail.com

유타 UTAH (Jan~Dec)

김한섭(공대 93) T: (734)904-9672 hanseup@ece.utah.edu

테네시 TENNESSEE (Jan~Dec)

김상호(공대 86) T: (856)386-1094 kimsh@ornl.gov

캐롤라이나 SC/NC/KY (Jan~Dec)

정신호(자연대 78) T: (417)277-1636 sinho.jung@duke.edu

휴스턴 HOUSTON (Jan~Dec)

구자동(상대 70) T: (713)206-1041 jykey2003@yahoo.com

하를랜드 IA/MO/KS/NE/AR/OK (Sep~Aug)

이치현(약대 77) T: (913)814-9452 leech@umkc.edu

조지아 GA/AL/MS (Jan~Dec)

김재호(공대 80) T: (404)372-2621 jhkros@gmail.com

플로리다 FLORIDA (Jan~Dec)

최희덕(상대 68) T: (973)610-5857 lee07073@hotmail.com

O.Smile Dentistry

늘 웃는 치과



일반 치료 · 임플란트 · 미용치료 · 신경치료

이범모 (치대 74) **(323)734-3710**

966 S. Western Ave #207, Los Angeles, CA 90006

www.yongsusanla.com



개성요리 · 궁중요리 전문점

용수산 YONG SU SAN

traditional korean cuisine

Tel : 213. 388. 3042 Mon thru Sun 11:30am ~ 10pm
950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since 1999 **듀오** US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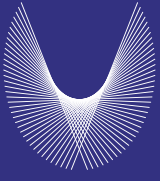
대표이사 박수경
[84入 소비자학과]

결혼해듀오



LA **213-383-2525**
NY **201-947-2525**

www.duouusa.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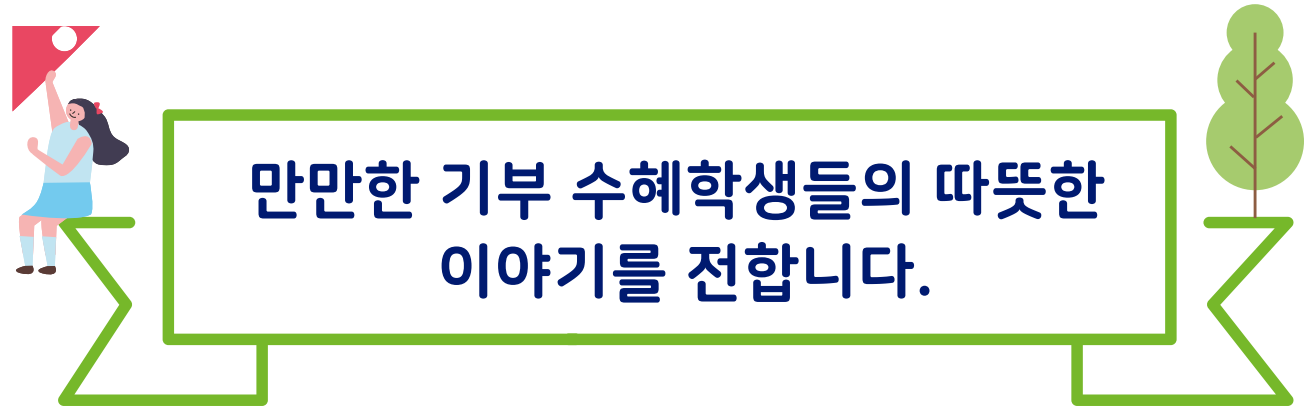


새로운
도약

당신과
함께

만만한 기부는 저소득층 학생들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선한 인재 장학금으로 사용됩니다.

서울대학교 모금캠페인



늦었지만, 마음을 전합니다

대학 시절 감사한 줄도 모르고 받았던 장학금이었지만, 이제는 장학금의 소중하고 깊은 뜻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늦었지만, 용기 내 전하고 싶습니다. 얼굴도 모르고 잘 알지도 못하는 어떤 학생을 위해 내어놓은 귀한 장학금을 통해 열심히 공부할 힘을 얻게 되었노라고,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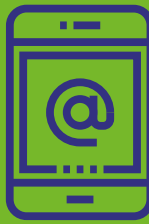
글. 최수완 국어교육과

꿈꾸는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장학금을 지원해주신 여러 선생님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고, 꿈을 이루기까지 앞으로 많은 도움을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은 학생 때 할 수 있는 의료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에 진출해 제가 할 수 있는 봉사의 범위가 넓어지면, 더 많은 사람이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도록 돕는 의학자로 봉사하고 싶습니다.

글. 육유정 의학과





지금 바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래 신청서를 작성 후 휴대폰으로 찍어
america@snu.ac.kr로 메일 보내주세요.
담당자가 참여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만만한 기부 간단 참여신청서 [MMH21-11]

성명:	연락처:
학과(특별과정):	
입학연도(기수):	
약정금액: <input type="checkbox"/> 정기후원 매월	원
<input type="checkbox"/> 일시후원 일금	원

